

12인의 성난 사람들

당신의 확신은 왜 바뀌었는가



배우

등장인물

1번 배심원(배심원장)

2번 배심원

3번 배심원

4번 배심원

5번 배심원

6번 배심원

7번 배심원

8번 배심원

9번 배심원

10번 배심원

11번 배심원

12번 배심원

경비

재판장의 목소리

장소 - 뉴욕지방법원 배심원실

때 - 1957년

제1막

뉴욕지방법원 배심원실, 1957년. 매우 뜨거운 여름 오후.

칠이라도 새로 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지는 낡고 넓은 방, 뒷벽에 창문 세 개, 창문 너머로 뉴욕스카이라인이 보인다. 방 옆에 화장실이 보이는데 세면기, 비누, 타올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객석에서도 보이고 그 안쪽으로 변소가 있다. 중앙에 긴 테이블이 있고 그 주위에 열두 개의의자가 놓여있다. 옆 벽에 벤치가 있고 의자 몇 개도 여분으로 놓여 있다. 작은 테이블이 있고냉수와 종이컵이 있으며 옆에 휴지통도 있다. 벤치 위 벽에 선풍기가 달려 있으며 음료수대위에 시계가 있다. 옷걸이가 길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 위는 선반을 만들어 덮었다. 중앙 테이블위에 연필과 메모패드와 있고 재떨이도 보인다. 천정엔 형광등이 달려 있는데 스위치는 문 옆에있다.

커튼이 올라가고 비어있는 방이 보인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재판장의 목소리 이것으로써 이 사건의 법률적인 검토는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배심원 여러분께 본 재판관이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증언도 들었고 이 사건에 어떤 법 해석이 가능한지도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사실을 허구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전 여러분의 정직하고 심오한 해안을 기대합니다. 피고의 유죄를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죄 평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에게 유죄평결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일단 유죄로 평결하면 재판관의 자비는 없을 겁니다. 이 경우 사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가 들어온다. 배심원 명단이 붙어 있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다.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사이. 배심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경비 자, 모두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배심원들 입장한다.

경비, 명단을 체크한다.

9번 배심원, 노인인데 방과 화장실을 가로질러 변소로 직행한다. 4번 배심원 신문을 펼친다. 몇 명의 배심원 창문을 연다. 몇 명은 방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잠시 서로 아무 대화가 없다. 3번 배심원 쪽지를 몇 장 꺼내서 자세히 읽는다. 2번 배심원 음료수대로 가서 물 한 잔 마신다. 배심원장 노트북에서 공지를 몇 장 떼어내서 투표용지를 만든다. 경비가 12번째 배심원의 이름을 확인한다. 7번 배심원이 4번 배심원에게 다가가서 껌을 권한다. 4번 배심원 고개를 젓는다.

7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하나 드릴까?

8번 배심원 (웃으며) 아니요, 됐습니다.

7번 배심원 우악스럽게 껌 하나를 입에 넣고 씹으며 6번 배심원에게 다가간다.

7번 배심원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기상청에 전화해보니까 오늘이 올 들어서 제일 더운 날입니다.

6번 배심원 고개를 끄덕이곤 말없이 창문을 응시한다.

경비 에어컨이라도 좀 설치를 해 놔야지 더워서 완전히 죽는 줄 알았네.
 좋아요 모두 계시네요. 전 바로 바깥에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노크하세요.

경비 퇴장한다. 정적 속에서 서기가 문을 잠그는 소리 들린다.

5번 배심원 문까지 잠가요?
10번 배심원 그럼 잠그고 하지. 그것도 모르셨어?
5번 배심원 딴 때는 왜 못 봤지?

10번 배심원 배심원장에게 가서 종이 찢어 놓은 걸 가리키며

10번 배심원 뭐 하시려구?
배심원장 혹시 투표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10번 배심원 대단하네. 여기 이분은 국회로 보내야겠어. (웃다가 기침이 목에 걸린다)

**배심원장 자기 손목시계를 보고 벽시계를 본다. 3번 배심원 물 한 잔을
받아서 2번 배심원에게 다가간다. 물을 마시며 방 안을 둘러본다.**

3번 배심원 (2번 배심원에게) 어땠어요?
2번 배심원 뭐...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3번 배심원 예? 난 졸려 죽는 줄 알았네.
2번 배심원 배심원 처음 나왔거든요.
3번 배심원 그래요? 난 몇 번 했는데 변호사애들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뭐
 뻔히 보이는데도 뭐라고 뭐라고 계속 말을 만들잖아요.
2번 배심원 그게 직업이잖아요.
3번 배심원 그렇죠,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재판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애들은 싹수가 보였을 때 미리 따귀도 치고 가르쳐 놓는 게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2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서 약간의 냉기를 느끼곤 음료수대로 가서 물을 더
받아 혼자 서서 마신다.**

7번 배심원 (배심원장에게) 시작합니다
3번 배심원 그래 합시다. 다들 뭐 준비된 것 같은데.
배심원장 한 오 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선생님 한 분이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5번 배심원 (배심원장에게) 번호 대로 앉아요?

배심원장 글쎄요.

8번 배심원 창밖을 보고 있다.

12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전망 좋다.

8번 배심원 고개를 끄덕인다.

어땠어요?

8번 배심원 묵묵부답.

그래도 좀 낫어요. 이런 건 분명하잖아 - 안 그래요? 살인사건으로 떨어져서
운이 좋았지 절도나 폭력 같은 거는 긴가민가해요. (자신도 창문 밖을
내다보며) 가만있어, 저게 올워쓰 빌딩인가?

8번 배심원 예.

12번 배심원 참, 평생 뉴욕 살면서 저길 한 번 안 가봤네요.

**8번 배심원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12번 배심원 그런 8번 배심원을 잠깐
쳐다보고 다른 곳으로 간다.**

7번 배심원 (10번 배심원에게) 제기랄 이거 완전히 시간낭비야. (웃는다)

10번 배심원 이걸 저기 앉아서 삼일동안 듣고 있었잖아.

7번 배심원 그 칼 말예요. 아니 애들도 아니고 그런 애길 믿으라니 게 말이 돼요?

10번 배심원 그러려니 해야지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7번 배심원 그렇죠 뭐.

10번 배심원 심하게 코를 푼다

감기 걸렸어요?

10번 배심원 어 여름 감기가 더 지독하다더니. 코가 다 혈었어. (다시 자동차 경적 같은
큰소리를 내며 코를 푼다)

7번 배심원 우와 소리 죽이네요. 눈에다 한 번 해보세요. (벤치를 밟고 올라서서 선풍기를
켜보려 애쓴다) 잘됐다 이거, 선풍기까지 고장이네.

배심원장 제가 한 번 볼까요?

**3번 배심원 앉아있는 4번 배심원에게 다가서서 4번 배심원이 보고 있는
신문에 시선을 준다.**

배심원장 벤치로 올라서서 선풍기를 점검한다.

고장이네요. (내려선다)

3번 배심원 (4번 배심원에게) 뭐 특별한 거 있어요?
 4번 배심원 주식 시황 확인하는 겁니다.
 3번 배심원 주식관계 일 하세요?
 4번 배심원 중계(브로커)일 합니다.
 3번 배심원 전 문서송달회사 하나 운영합니다. “배송 서비스 준비된 사람들” 마누라가 지은 이름이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직원이 37명입니다.
 7번 배심원 (손목시계를 보며) 시작하면 안 돼요?
 배심원장 예,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7번 배심원 (2번 배심원에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야구장 티켓 끊어놨거든요. 양키즈 대 클리브랜드. 이번에 새로 온 투수가 있는데, 모젤레우스키, 완전 물건이야 물건.(그는 손으로 공 날라가는 시늉을 하는데 엄청나게 휘는 공이다) 슈우우웅. 타자 정신을 쏙 빼는 거지.

2번 배심원 아무 반응이 없다.

배심원장 야구 안 봐요? (배심원장에게) 여기 어떻게 앉을까요?
 글썄, 번호대로 앉는 게 어떨까요? (좌석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 삼, 사 이렇게.
 10번 배심원 그냥 앉은데 앉지.
 4번 배심원 번호대로 앉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0번 배심원 (일어나며) 그러지 뭐 그림. (일어나 10번째 자리로 옮겨 앉는다)

배심원들 자기 자리를 찾아 앉는다. 8번 배심원 계속 창밖을 보고 있다. 9번 배심원은 아직도 변소에서 안 나오고 있다.

12번 배심원 (11번 배심원에게) 검사 봤어요?
 11번 배심원 (독일어 억양으로) 뭐라고요?
 12번 배심원 예리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씩하나씩 논리적으로 찹찹 쌓아가잖아요. 보통 머리 좋은 사람 아니고는 그런 식으로 못하지.
 11번 배심원 잘하더라구요.
 12번 배심원 일단 박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7번 배심원 자자 막 올라갑니다.
 배심원장 (8번 배심원에게) 앉으시죠.

8번 배심원 배심원장의 말을 못들었다.

창문 앞에 서계신 분.

8번 배심원 뒤돌아보고 깜짝 놀란다.

앉으시죠.

8번 배심원 아, 죄송합니다. (자기 자리로 가 앉는다)

9번 배심원 변소에서 나와 세면기에서 손을 씻는다.

10번 배심원 (정반대에 앉아있는 4번 배심원에게) 세상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다 만나네.

12번 배심원 통계를 보면요...

10번 배심원 통계는 무슨 통계야, 개네들 때문이지. 그놈들은 그냥 막 자라게 내버려두잖아. 다 자업자득이야, 안 그래?

배심원장 화장실 문으로 간다.

7번 배심원 (5번 배심원에게) 양키스팬이쇼?

5번 배심원 밀워키요.

7번 배심원 밀워키!? 아니 그거야말로 대들보에 이마 부딪히는 소리네, 그 팀에 비오면 운동장에 천막 치는 애들 빼고 쓸만한 놈이 누가 있습니까?

배심원장 (9번 배심원에게) 이제 시작합니다 선생님.

9번 배심원 화장실에서 나온다.

9번 배심원 죄송합니다.

9번 배심원 자기 자기로 바로 가 앉는다.

7번 배심원 밀워키!

배심원장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방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토론을 먼저하고 투표 할까요, 아니면 투표를 먼저 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보고... (잠시 사이, 주위를 둘러보곤) 뭐 어떻게?

4번 배심원 보통 보면 일단 선행투표를 하는 걸로 압니다.

7번 배심원 합시다 그럼, 누가 알아요, 다들 바로 집에 가게 될지.

배심원장 좋을 대로 하시죠. 에... 이게 지금 1급 살인이니까 “유죄”로 나오면 바로 전기의자로 보내는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4번 배심원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배심원 투표합시다.

10번 배심원 손들지 뭐 손.

배심원장 반대하시는 분? (주위를 둘러본다)

모두들 침묵.

좋습니다. 만장일치제라는 건 다들 아시죠? 준비되셨죠?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예닐곱 명은 바로 손을 든다. 몇 명은 천천히 손을 올린다. 의장이 일어나서 손을 세는 동안 배심원들 서로를 둘러본다. 9번 배심원의 손이 올라오고 이제 남은 건 8번 배심원 뿐.

아홉 - 열 - 열하나, 열한 분이 “유죄”구요. 이제 “무죄” 손드세요.

8번 배심원 천천히 손을 든다.

하나. 네, 그럼 11대 1로 유죄가 우세. (배심원장 자리에 앉는다.)

10번 배심원 그렇지! 하하 항상 한 명이 있기 마련이지.

7번 배심원 (잠시 사이) 그래서 이제 어떡하면 되는 거요?

8번 배심원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10번 배심원 허허허!

3번 배심원 (8번 배심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가만, 나 좀 보세요. 당신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번 배심원 모릅니다.

3번 배심원 아니 이성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앉아서 우리랑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 놈 아주 무서운 살인자예요.

8번 배심원 열여섯 살이죠.

3번 배심원 그 나이면 이미 어른이에요. 그 놈이 칼로 자기 아버지를 4인치 깊이로 찔렀다고요.

6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난 첫날부터 알아봤는데.

3번 배심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8번 배심원에게) 누가 봐도 뻔한 이치예요. 검사가 이렇게 저렇게 다 증명했잖아. 내가 한 번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8번 배심원 아니요.

10번 배심원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나?

8번 배심원 아무것도요. 그냥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번 배심원 아니 여기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열한 명이 유죄라고 손들었고 당신 말곤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

10번 배심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그 놈이 하는 소릴 믿는 건 아니지요?

8번 배심원 그 얘길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릅니다. 안 믿을지도 모르죠.

7번 배심원 왜 그럼 ‘무죄’라고 손들어요?

8번 배심원 여기 열 한 분이 ‘유죄’라고 손들었잖습니까, 제가 손을 들면 개를 사형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한테는 쉽지 않았습시다.

7번 배심원 나한테 그게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번 배심원 아닙니다.

7번 배심원 왜, 내가 손을 번쩍 드니까 쉬워 보입니까? 갠 유죄예요. 당신이 백년을 얘기해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요.

8번 배심원 당신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린 한 인간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5분 만에 이런 문제를 결정합니까.

우리가 만약 틀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7번 배심원 우리가 틀렸다고 가정해 보라구요? 아니 그럼 이 건물 전체가 내 머리통 위로 무너져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가정이야 뭔들 뭣해.

8번 배심원 당신 말이 맞습니다.

7번 배심원 (잠시 사이를 두고) 얼마나 걸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모두들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녜요. 5분 만에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게 뭐?

8번 배심원 한 시간만 얘기합시다. 경기는 8시에 하죠?

7번 배심원 (웃으며) 제대로 만났구만.

잠시 침묵이 흐른다.

배심원장 (머뭇거리며) 누구 또 발언하실 분?

2번 배심원을 본다.

2번 배심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9번 배심원 아니요, 저는.

10번 배심원 난 한 시간 할애할 용의가 있소.

8번 배심원 알았어요, 그럼. 어제 우리 친구 놈이 해 준 애긴데 어떤 여자가 노브라로 비뇨기과에 들어 간거야-

10번 배심원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8번 배심원 이 사람이, 그럼 당신이 얘기해 봐요. 왜 사람을 이렇게 잡아 놓고 가만있어?

10번 배심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이유는 없어요. 애는 평생을 발길질 당하면서 살았어요.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아홉 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사기로 들어가 있는 동안 1년 반 동안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흔히들 말하듯 출발선이 다른 애죠, 그렇게 18년을 살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애한테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할 시간은 빗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번 배심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심하다고 할진 모르지만, 우리 빗진 거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았잖아, 안 그래요? 그 재판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 거 같아요? 그런 재판을 받았다는 게 그런 애한테 다행인 거예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여기 다 어른들 아니요. 사실만 갖고 얘기 해야지, 안 그래요?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그 놈이 어떤 앤지 뻔히 알면서, 어? 개 하는 말 좀 믿어보자 어찌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봐요, 나도 평생을 그런데서 큰 사람이야. 단 한마디도 그놈들 말은 믿으면 안 돼. 아주 뼈 속까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9번 배심원 그 말 들으니 당신이 아주 무식한 인간이란 확신이 드는구만.

10번 배심원 뭐요? 이 노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9번 배심원 당신이 예언자야 뭐야? 뭘데 인간의 진실에 대해서 함부로 확언을 하고 단정을 해?

10번 배심원 아 여기 또 경건한 분이 계셨구만 (다른 사람들에게) 뭐해요, 손들 모으지 않고.

9번 배심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이 사람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3번 배심원 그만합시다. 일요일도 아니고, 설교 들으러 여기가지 나온 건 아니니까.
 10번 배심원 예언자!

**9번 배심원 반쯤 일어서 있다. 8번 배심원의 손이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아
 당겨서 자리에 앉힌다. 12번 배심원은 공책에 뭔가 낙서를 하고 있다.**

4번 배심원 토론이 필요하다면 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배심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일 하라고 모인 거 아닙니까. 저기 다르게 생각하는
 분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저 이유가 아니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저 분이 어디서 헛갈린 건지
 좀 짚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11번 배심원 (12번 배심원의 낙서를 가만 보다가) 뭘 그렇게 그림니까?
 12번 배심원 아, 네 (낙서한 종이를 집어 들고는)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맡은 광고입니다.
 쌀로 만든 간편식예요. “왼손에 가방을 오른손에 아침식사를” 제가 쓴 카피죠.
 11번 배심원 (혈오의 눈빛을 감추고 웃으며) 많이 팔겠네요.
 배심원장 그런 건 좀 나중에.

**2번 배심원, 일어나 옷걸이로 가서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목캔디를
 꺼내온다.**

12번 배심원 미안합니다. 낙서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생각이 명료해지거든요.
 배심원장 얘기가 좀 진전이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시죠? 결론이 날 때 까지 여기서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거.
 12번 배심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맞다면 여기
 이 분(8번 배심원을 가리킨다)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일 이분씩 이분께 설명을... 아니 그저 대충 한 번 생각해 본 겁니다.
 배심원장 아니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배심원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7번 배심원 뭐든지 어서 시작합시다.
 배심원장 네. (2번 배심원에게) 선생이 첫 번째겠네요.
 2번 배심원 예. 저... (긴장, 사이)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난 유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분명하기 때문에. 무죄로 증명한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8번 배심원 아무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법정은 오로지 검사 독무대였어요.
 변호사는 입도 제대로 안 열고 말했으니까. 헌법에 변호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시죠?
 2번 배심원 (격앙 돼서) 나도 당연히 알죠. 그게 무슨 의미지도 알고. 내 말씀은 피고가
 유죄라는 겁니다. 왜냐면, 목격자가 있잖아요. (동의를 구하는 눈으로 주위를
 본다.)
 3번 배심원 자, (자기 메모장을 들여다보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없이 사실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바로

밑에 세 들어 살던 노인 기억하시죠. 밤 12시 10분에 위층에서 고성인 오가는 걸 들었고 ‘싸우는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피고가 “죽여 버릴 거야” 했고 “쿵”하면서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 노인이 현관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피고가 계단으로 뛰어 내려와서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가슴에 칼이 꽂혀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배심원장
3번 배심원

그리고 부검결과 사망시간은 자정 무렵 이라고 했죠.
맞아요. 이렇게 엄연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애는 유죄예요. 나도 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 열여섯 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번 배심원
4번 배심원

나도 당신 말에 동의요.
(안경을 벗으며) 난 확신합니다. 개가 한 말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 앤 살인사건이 있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지만 끝난 지 한 시간 만에 제목도 기억 못하고 누가 나왔는지도 기억 못했습니다.

3번 배심원
4번 배심원
10번 배심원
11번 배심원
배심원장
10번 배심원

맞아요. 다들 들었지요? (4번 배심원에게) 당신이 맞아.
아무도 개가 극장에 갔다 오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아, 그 여자 있잖아 길 건너편에. 그 여자 증언도 못 믿겠다면 뭐는 믿어?
그렇죠, 그 여자는 살인 장면을 직접 봤으니까.
(반쯤 일어나서) 순서대로 발언합시다.
(손수건을 들고 일어나서) 요거, 한 마디만 합시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코를 킁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꼭대기층이 얼마나 더운지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창문을 봤는데 이놈이 이게 칼을 지 애비한테 겨누고 있는 거지, 그 때가 딱 열두시 십분 이라고 했고, 모든 게 딱 들어맞잖아. 보쇼, 이 아줌마 그 애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야. 그 아줌마네 창문에서 철길건너가 바로 개네집 창문이고, 개가 죽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맹세하잖아.

8번 배심원
10번 배심원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 창문을 본거죠.
그래요. 그리고 승객은 하나도 없이 시내 쪽으로 회송하던 중이었지. 불이 꺼져 있었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법정에서 증명했잖아 그 시각에 불 끄고 지나가면 이쪽에서 저쪽 창문이 흰히 보인다고, 증명했다구.

8번 배심원
10번 배심원
8번 배심원

(10번 배심원에게)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래요.
그 애 말은 절대 안 믿으시죠, 왜 그 여자분 말은 철썩같이 믿으시는 거죠? 그 여자도 아까 말씀하신 뺑속까지 거짓말쟁이 ‘족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었나요?

10번 배심원

(화가 치밀어서) 당신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

10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다가간다. 몇몇 배심원들 10번 배심원을 가로막으려 일어난다.

배심원장

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10번 배심원 (화난 채로) 지가 도대체 뭐야... 원데...
3번 배심원 앉으세요. 뭐 그만한 일 갖고 화를 냅니까.

10번 배심원 앉는다

배심원장 진정들 합시다. 평화적으로 하셔야지. (5번 배심원에게) 선생 말씀할 차례죠.
5번 배심원 (불편한 시선으로 좌중을 둘러 본 후) 통과합니다.
배심원장 그것도 선생님 권리니까, 그럼 다음 분은?
6번 배심원 몰라요. 난 재판 초반에 확신이 들었어요. 범행동기라고 하나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동기가 없으면 왜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그 아파트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분명해지는 게, 한 일곱시인가부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속 싸웠다고 했잖아요.
11번 배심원 8시부터라고 그랬죠, 7시가 아니고.
8번 배심원 맞아요 8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두 번 후려치는 소리를 들었고 마지막에 애가 화나서 집을 뛰쳐나가는 걸 본거죠. 그게 뭘 증명합니까?
6번 배심원 뭘 직접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증명한다고 했나요?
8번 배심원 그 싸움이 살인 동기가 된 거라고 하셨는데, 검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 그게 그렇게 유력한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애는 수없이 그렇게 맞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 폭력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따귀 두 대로 살인을 저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4번 배심원 (조용히) 따귀 두 대씩 매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한계점이란 게 있는 겁니다.
배심원장 (6번 배심원에게) 더 말씀하실 겁니까?
6번 배심원 없습니다.
배심원장 네. (7번 배심원에게) 다음 분은?
7번 배심원 나요? (사이, 주위를 둘러보고) 다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 개는, 그렇지 별이 다섯 개라잖아요. 열 살 때 선생한테 돌을 던져서 소년 법정에 섰다가 14살 때 소년원으로. 그 뒤로 자동차 절도, 강도. 칼 들고 설치다가 두 번이나 체포당했고. 친구들 중에 개가 칼 쓰는 게 제일 빨랐다면서요. 아주 뭐 훌륭한 애죠.
8번 배심원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수없이 맞았어요, 주먹으로.
7번 배심원 나라도 주먹으로 때리지, 그런 앤.
4번 배심원 바로 그런 구타가 살인동기라고 보진 않습니까?
8번 배심원 (사이) 모르겠습니다. 그 애 마음에 분노심을 키웠겠죠.
3번 배심원 요즘 애들이 그래요. 걸핏하면 화내고! 적개심! 뭘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애들 말버릇 들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한테 대답할 때 “네”도 안 했어 “네, 아버지.” 그랬지. 요새는 어떤 줄 아세요?
8번 배심원 아버지들이 요새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3번 배심원 아니라고? 당신 애들 있어요?

8번 배심원 둘이요.

3번 배심원 난 머슴애 하나. 스무 살이죠. 정말 겔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지. 어떻게 됐는 줄 아쇼? 9살 때 그놈이 친구하고 싸우기가 무서우니까 도망을 치더라 말야, 내가 봤지. 그때 창피해서 이 목구멍에서 신물이 넘어오드라구요. 쫓아가서 붙잡아 세워놓구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한테 남자가 뭔지 배울래, 아니면 내 손으로 여기서 절단날래? 그렇게 시작해서 사나이를 만들어 놔지. 16살 때 나하고 싸우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갈기더구만. 덩치가 이만하거든. 2년동안 얼굴도 못봤어요. 썩어빠진 놈. 여기다 아주 말뚝을 박아놓고 갔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 생각보다 너무 멀리 나갔다. 당황한 기색이 엿보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4번 배심원 (일어서며) 지금 초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는, 좋아요 애가 어디 안 좋은 동네서 나쁜 것만 보고 컸다고 칩시다. 그걸 지금 어떡하겠어요? 우린 지금 여기 이 살인사건의 피고로 나온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했냐 안했느냐를 판단하러 모인거지, 왜 개가 그렇게 컸을까 하는 걸 따지자는 게 아녜요. 개는 빈민굴에서 컸어요. 빈민굴은 범죄의 온상이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걸 압니다. 그건 비밀이 아녜요. 그런데서 자란 대들은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0번 배심원 (끼어들며) 아 그 형씨 말씀 한 번 조리있게 하시네. 그런 동네서 기어나온 애들은 일단 쓰레기라고 봐야지. 어떻게 좀 격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5번 배심원 (일어나며) 나도 빈민굴에서 자랐어요. 일주일에 육일은 빈민구제병원 쓰레기통에서 잤어요.

10번 배심원 아니 저 사람...

5번 배심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담벼락 밑에서 놀았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그 냄새가 날 겁니다.

10번 배심원 (점점 화가 치밀어서) 가만있어봐, 이봐!

배심원장 (5번 배심원에게) 자,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거니까.

5번 배심원 (크게)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면 뭡니까?

3번 배심원 5번 배심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다독거린다. 5번 배심원 쳐다보지 않는다.

3번 배심원 보세요, 당신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 너무 과민반응하지 말아요.

11번 배심원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배심원장 자 말싸움은 하지 맙시다. 다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8번 배심원에게) 선생차렷니다. 말씀하세요.

8번 배심원 전 아닌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절 납득시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정한 줄 아는데요.

배심원장 맞아요, 잊었네요.

10번 배심원 아니 뭐가 달라지는데? 저 사람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는 거 아냐.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구.

배심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일단 끝까지 이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배심원 (역겨운 표정으로) 거 뭐 애들처럼 그래?

배심원장 ‘애들’이라니요?

10번 배심원 애들 몰라? 애들 같다고.

배심원장 왜, 제가 좀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게 우습게 보입니까? (일어선다) 선생이 하실래요? 자요, 여기 와 앉어요. 선생이 책임지고 한 번 해봐요. 난 여기서 입닥치고 있을 테니까?

10번 배심원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그래? 진정해 이 사람아, 어?

배심원장 나한테 진정해라 마라 그런 말마시고, 자요, 여기 와 앉으세요. 선생님이 한 번 부드럽게 진행해 보세요. 선생한테 이게 식은 죽 먹기로 보이나본데, 배심원장님 이리 나오세요. 얼마나 잘 하는지 한 번 좀 보여주시죠.

10번 배심원 (11번 배심원에게) 아니 내가 뭐라 그랬나?

배심원장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12번 배심원 진정합시다.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배심원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럼 당신이 한 번 해볼래요?

12번 배심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무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7번 배심원 당신만한 사람 없어요. 마운드를 지키고 계속 던져요.

10번 배심원 자 다음 누구 차례야 그래서

(사이)

8번 배심원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지금 말하라고 하시면 지금 해도 무방합니다.

배심원장 (힘빼고) 맘대로 하세요.

8번 배심원 (사이를 둔 후) 예. 저한테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여러분 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재판을 보면 그 애는 유죄로 생각됩니다. 유죄인지도 모르죠. 저도 삼 일 동안 꼬박 앉아서 탄탄하게 증거가 구성되는 걸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고를 해갔지만 전 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변호사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수없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요.

10번 배심원 어떤 미세한 부분들이요? 보세요 변호사들이 질문을 안 할 때는 자기들이 이미 답을 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해봤자 득될 게 없기 땀에 그러는 거예요.

8번 배심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멍청한 변호사일 수도 있겠지요.

6번 배심원 우리처남 얘기네

몇몇 배심원들 웃는다.

8번 배심원 (웃으며) 쪽 개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다른 변호사를 부르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그 피고석에 있었다라면 제 변호사가 검사 쪽

증인들의 헛점을 날날히 파해치거나 적어도 노력은 해주길 바랬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는 증인이 딱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소리를 들었고 나와 보니까 애가 도망쳐 내려갔다.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제시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주요했던 기소 아니었습니까? 그 두 사람이 틀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 12번 배심원 그게 무슨 소립니까? “틀렸다고 가정해 보라니” 그럼 뭐하러 증인을 부릅니까?
8번 배심원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번 배심원 판사 앞에서 선서를 했는데 그럼 위증을 했다는 말입니까?
8번 배심원 그 분들도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번 배심원 인간 인간 하시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번 배심원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12번 배심원 이게 뭐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백퍼센트 단정할 수야 없지.
8번 배심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번 배심원 (화가 치밀어 일어난다) 그래요? (8번 배심원에게) 그럼 물증을 갖고 얘기합시다. 아버지 가슴에 꽂혀있던 그 접는칼은?
2번 배심원 잠깐만요. 아직 발언 안하신 분들이 계신데... 순서대로...?
3번 배심원 아무때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면 돼요. 가만있어봐요 좀 (8번 배심원에게) 그래 그 칼은 어떡할거요? 그 착하고 순진한 놈이 살인하던 날 밤에 샀다고 시인한 거. 그건 어떡할 건데?
8번 배심원 좋아요 그 애길 해보죠. 여기 갖다 놓고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심원장에게) 봐도 되겠죠?

배심원장 일어나서 문으로 간다.

- 3번 배심원 어떻게 생겼는지 다 봤잖아요.

배심원장 노크한다.

경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배심원장 그에게 귓속말한다.

경비 꼬덕이고 나간다. 문이 다시 잠긴다.

그걸 뭐하러 또 봐요?

- 5번 배심원 당신이 칼 애길 꺼냈잖아요.
4번 배심원 배심원은 법정에서 제시된 물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8번 배심원에게) 그 칼, 그 칼의 구입 경위, 상당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번 배심원 네.
4번 배심원 좋아요, 그럼 여기 나온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봅시다. 하나. 그 애는 아버지한테 몇 대 얻어터지고, 살인이 일어난 밤 8시에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8번 배심원 “얻어터지고”가 아니라 “몇대 맞고”라고 그랬습니다. “터진 거”하고 “맞은 거”는 느낌이 다른 말입니다.

4번 배심원 아버지한테 몇 대 ‘맞고’나서, 둘. 동네에 있는 잡화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3,4번 배심원 (함께) 접이칼

4번 배심원 접이식칼 (3번 배심원에게) 고맙습니다. 셋. 이 칼이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란 겁니다. 손잡이에 매우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넷. 잡화점 주인이 그 칼을 알아봤고 자기네 물건 중에 그런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참, 그렇지 8시 45분에 식당 앞에서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죠?

8번 배심원 네, 맞습니다.

3번 배심원 틀림없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분 얘기 좀 잘 들어봅시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고 하는 말씀이네.

4번 배심원 친구들과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9시 45분경에 헤어졌습니다. 그 동안 친구들이 그 접이칼을 봤습니다. 개네들이 모두 법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이 바로 그때 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곱. 소년은 10시 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 애하고 검사가 얘기한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년은 자기가 11시 30분 까지 집에 있다가 그 밤새도록 틀어주는 심야영화관에 갔다고 합니다. 3시 15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있었고 경찰이 자기를 체포했다. 자 그럼 그 접이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서 소년의 감쪽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칼은 11시 30분부터 새벽 3시 15분 사이에 자기가 극장에 가 있는 동안 호주머니 속에 난 구멍으로 잃어버렸고 그후 다시 보지 못했다. 자, 제 생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은 이렇게 됩니다. 피고는 그날 극장에 가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구도 개가 11시 30분경에 나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극장 직원 누구도 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개는 지가 뭘 봤는지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재 일어났던 일은, 걔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다시 싸우게 됐고 12시 10분경에 그 칼로 아버지를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나기 전에 지문을 지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다.

경비가 잠금장치를 열고 꼬리표가 부착된 흥미롭게 디자인된 칼을 들고 들어선다.

4번 배심원, 경비에게 가서 칼을 받아든다

경비 나가고 문을 잠근다.

관계자들이 모두 이게 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 선생이 한 번 말해보세요. 이 칼이 진짜 그 애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갔고 길에서 누가 주워서 그 애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재미삼아 죽였다 이 말입니까?

8번 배심원 아니요. 난 소년이 그 칼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 누군가가 비슷한 칼로 소년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4번 배심원 칼을 팔각 펴서 테이블에 꽂는다.

4번 배심원 이것 좀 잘 보세요. 난 이렇게 생긴 칼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물건을 개한테 판 주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 엄청난 우연의 일치를 우리한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8번 배심원 누구한테도 받아들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3번 배심원 (소리치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8번 배심원 잠시 말없이 서있다가 주머니에서 칼 하나를 툭 꺼낸다. 칼을 눈앞에 쥐고 있다가 날을 연다. 탁자를 의지하고 다가서서 먼저 꽂혀있던 칼 옆에 나란히 꽂는다. 아주 유사한 두개의 칼. 소란이 일다. 8번 배심원 뒤로 물러서서 관망한다.

6번 배심원 어, 똑같은 칼이네요.

7번 배심원 뭐야 이거.

12번 배심원 어디서 온 거죠?

2번 배심원 어떻게 된 거지?

3번 배심원 (8번 배심원을 보며 놀라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10번 배심원 정말 지금 뭐하자는 거야. 당신 도대체 뭐야?

4번 배심원 조용히! 조용히들 해보세요. (8번 배심원에게) 어디서 난 칼이요?

8번 배심원 어제 생각하면서 몇 시간동안 걷다가 나도 모르게 그 소년의 동네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칼은 그 소년의 집에서 세 블럭 떨어진 작은 전당포에서 산 겁니다. 6달러 들었습니다.

4번 배심원 이런 접이식칼을 팔거나 사는 건 불법입니다.

8번 배심원 예, 법을 어겼습니다.

3번 배심원 이거 보쇼, 자꾸 함정을 파놓고 얘기하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싶은 대로 됐다고 칩시다. 이런 칼이 열 자루쯤 더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요?

8번 배심원 유일한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3번 배심원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신이 똑같은 칼을 하나 더 발견했다. 그게 무슨 역사책을 뒤집을 대단한 발견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11번 배심원 여전히 아주 믿기 힘든 우연이네요.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똑같은 칼을 사서 아버지를 찔렀다는 건.

3번 배심원 그렇지. 바로 그거지.

7번 배심원 확률이 백만분의 일은 될거요.

8번 배심원 가능합니다.

4번 배심원 그러나 증명되기가 힘들어요.

배심원장 모두 앉읍시다. 이렇게 서서 얘기하실 겁니까?

모두 자리로 돌아간다. 8번 배심원 서서 관망한다.

2번 배심원 어떻게 그 소년이 구입한 칼하고 똑같은 칼을 찾아냈을까요. 되게 흥미롭네요.

3번 배심원 뭐가 흥미로워요? 그게 무슨 증거라도 된다는 거요?

2번 배심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전 다만-

3번 배심원 흥미롭다고! (8번 배심원을 가리키며) 보쇼, 개가 그걸 처음에 왜 샀다고 했습니까?

8번 배심원 개는-

3번 배심원 내가 기억해요. 갠 그걸 친구 선물 주려고 샀다고 했어요. 친구에게 다음날 주려고 했다. 왜냐면 자기가 친구 칼을 길에다 떨어뜨려서 깨먹었으니까.

8번 배심원 그렇게 말했죠.

7번 배심원 허튼소리!

9번 배심원 친구 칼을 망가뜨린 건 맞다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나와서 개가 자기 칼을 부러뜨렸다고 증언했잖아요.

3번 배심원 그렇죠. 그게 살인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라고 했죠? 삼주 전 맞죠? 그러면, 왜 우리 경우 바른 청년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후 반시간 만에 이 칼을 사서 고작 세 시간 반 만에 경찰이 와서 뺏어가기 전에 아버지 가슴에 찔러 났을까?

7번 배심원 에이 분명히 친구 주려고 산건데, 잠깐 한 번 써본 거겠지.

산발적인 웃음

8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묻고 싶었던 건데, 만약 소년이 그 칼을 아버지한테 사용하려고 샀다면 왜 범행 몇 시간 전에 살인도구를 친구 세 명에게 보여줍니까?

3번 배심원 이거 봐요, 이건 전부다 말이에요 말. 개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걸 알잖아.

8번 배심원 거짓말 한 걸 수도 있지요 (10번 배심원에게) 개가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번 배심원 별 바보같은 질문도 다 듣겠네, 네 그렇습니다.

8번 배심원 (4번 배심원에게) 당신은?

4번 배심원 내 답변을 알잖소. 거짓말입니다.

8번 배심원 (5번 배심원에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니까?

5번 배심원 확신할 순 없지만...(평상심을 잃고 당황하여 주위를 본다)

3번 배심원 (흔들리는 틈에 끼어들어) 뭘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8번 배심원에게) 당신이 뭐야, 개 변호사야 뭐야? 당신이 똥데 우리한테 심문을 해?

8번 배심원 그런 게 배심원실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었습니까?

3번 배심원 우리 좀 한 번 보세요. 여기 열 한 명은 여전히 개가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7번 배심원 그럼, 당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암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은 못 바뀌요.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고 싶으면 이 배심원단은 포기선언 하자구요. 갠 다시 재판 받을 거고 보나마나 유죄 선고지.

8번 배심원 아마도 그럴 겁니다.

7번 배심원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밤새요?

9번 배심원 단 하룻밤이요. 소년 하나가 죽어요.
 7번 배심원 아저씨! 어차피 모두 가는 거 아니에요?
 2번 배심원 (배심원장에게) 그런 농담은 하는 게 아니죠.
 배심원장 저보고 뭘 어떡하라고요?
 10번 배심원 아니 나 원 참, 그 칼이 뭐 어쨌다는 건지 원. 누군가 개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잖아. 뭐가 더 필요해? 원 듣고 있을려니까 속이 다 타네 정말. 결정하고
 나갑시다 좀.
 11번 배심원 그 칼이 검사한테 매우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오전 하루를 내내 그걸로
 보냈잖아요...
 10번 배심원 아니 그런 새끼 검사가 뭘 알아.
 배심원장 자, 제 생각에는 그 증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건 지체만 되니까. (8번 배심원에게) 어떠십니까?
 6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당신 한 명 뿐이요.
 8번 배심원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투표합시다. 이번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 나는 빠지겠습니다. 여전히 열한명이 유죄로 생각하신다면
 저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판사에게 유죄 평결을
 전합시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무죄로 투표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 앉아서
 더 얘기합시다. (사이) 그게 답니다. 투표하시겠습니까?
 3번 배심원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구만.
 12번 배심원 하는 게 좋겠습니다.
 7번 배심원 합시다, 얼른.
 배심원장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몇몇 배심원들 고개를 끄덕인다. 8번 배심원 창가 쪽으로 이동한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이걸 돌려 주세요. (종이조각을 돌린다.)

**8번 배심원 서서 다른 배심원들을 본다. 배심원들 종이 조각을 돌려 갖는다.
 다 돌리고 나서 기입을 시작한다. 몇몇은 종이를 접어서 배심원장에게
 전달한다. 배심원장 모든 종이를 자기 앞으로 모은다. 첫 번째 종이를 펴서
 읽는다.**

“유죄.”

차례로 다른 종이를 읽는다.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무죄”

**여기저기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다. 8번 배심원 긴장을 풀고, 자리로 가
 앉는다.**

(마지막 종이를 읽는다) “유죄”

10번 배심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7번 배심원 한 분이 또 갈아 타셨네!

10번 배심원 좋아, 누구야 이번엔?

11번 배심원 잠깐만요. 비밀투표였잖아요. 그런 질문이 어딴습니까?

3번 배심원 비밀? 비밀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배심원방에 비밀이 어딴어요. 누군지 알겠구만 (5번 배심원에게 가서) 이거 봐요 참 어이가 없네! 당신 처음에는 유죄라고 해놓고, 누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어린애 애길 하면서 마음을 혼드니까 이젠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더 가슴 찢어지는 얘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형씨하고 성금을 걷어 성금을.

5번 배심원 잠깐.

3번 배심원 자기 말을 끝내고 몸을 돌린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어딴어?

3번 배심원 다시 몸을 돌려 얼굴을 마주한다. 4번 배심원 둘 사이로 들어가서 5번 배심원의 팔을 잡는다.

4번 배심원 놔 이거! (4번 배심원의 팔을 흔들어 뿌리치며) 지가 뭔데 나한테 소릴 질러?

5번 배심원 됐습니다. 진정하세요.

4번 배심원 지가 뭐야 도대체? 지금 저 인간 하는 거 봤어요?

4번 배심원 일단 앉아요.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잊어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3번 배심원 그럼 흥분하지 안 하게 생겼어. 죄 지은 놈 죄 값 받게 하려구 모였는데 갑자기 누가 동화같은 애길 하니까- 그걸 뉘 놓고 듣고 있어.

2번 배심원 (부드럽게) 이해하세요.

3번 배심원 뭘 이해해, 뭘. 살인자들이 벌건 대낮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게 놔두자는 거야? 아예 그 칼을 다시 쥐어주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

배심원장 언성을 좀 낮추세요. 누구 건설적인 말씀 없습니까?

11번 배심원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자기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

7번 배심원 아니, 하던 얘기가 마저 합시다. (5번 배심원에게) 그래서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뭘니까?

9번 배심원 그 분이 아니고 나요, 왜 그랬는지 말해 드릴까?

7번 배심원 아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졌는데요.

9번 배심원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생각을 좀 얘기해야겠어요.

10번 배심원 들을 필요가 있나?

6번 배심원 이것 봐요, 닥치고 들어요.

9번 배심원 고마워요. (7번 배심원에게) 이 분은-(8번 배심원을 가리키며) 혼자서 우리

생각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애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혼자 버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랬고 내가 나선 겁니다. 난 그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 소년은 유죄일지 모르겠으나 좀 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번 배심원 화장실 쪽으로 간다.

배심원장 이제 표는 10대 2가 됐습니다.

7번 배심원 화장실로 들어가서 광하고 문을 닫아버린다.

9번 배심원 여기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법이...
8번 배심원 (9번 배심원에게) 어차피 귀 닫고 있을 사람입니다.
3번 배심원 말씀 끝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배심원장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한 사람이 저기 들어가 있으니 기다려야죠.

배심원장 칼이 꽂혀있는 지점으로 가서 꼬리표가 붙어있는 칼을 뽑아서 다시 접는다.

12번 배심원 (11번 배심원에게) 여기서 꼭 막힌 것 같은데요. 그 노인이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좋은 생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가 웃는다) 광고계에서 말이죠... 제가 말했죠 제가 광고회사에 근무한다고.

배심원장 출입문으로 가서 노크한다.

경비 문을 열고 들어온다.

배심원장 칼을 건네준다.

경비 칼을 건네받고 나가서 문을 잠근다.

그쪽에는 괴짜들이 많은데요- 자기 의견을 내는 희한한 방식이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11번 배심원 고개를 끄덕인다.

11번 배심원 뭐 선생 직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쵸? 무슨 일 하세요?
12번 배심원 시계 제작합니다.
12번 배심원 정말이요? 유럽에서 건너오신 최고의 시계기술자시군요.

11번 배심원 간단히 목례한다.

6번 배심원 일어나 변소로 간다.

아무튼요-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이런 순간이 오면 개네들이 꼭 나서서 의견을 내는데, 죽여요, 처음에 들으면 꼭 헛소리 같거든요 “장대끝에 매달아 놓고 누가 관심있어 하는지 봅시다.” 또는, “버스에 실어 놔다가 월 스트리트에서 내려지는지 봅시다” 등등. 근데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8번 배심원 화장실로 가서 웃옷을 고리에 걸어 놓는다.
3번 배심원 5번 배심원에게 간다.

3번 배심원 (5번 배심원에게) 내가 좀 흥분했어요. 왜 말이 막 헛나갈 때 있잖아요. 못되게 굴 생각은 없었는데.

5번 배심원 아무대답없이 3번 배심원을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
7번 배심원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말린다.
8번 배심원 화장실로 간다.

7번 배심원 (화장실에서 8번 배심원에게) 영업하시는 분 맞죠?

8번 배심원 건축사입니다.

7번 배심원 우리가 물건 팔 때 단기간에 시장을 접수하는 스타일도 있고 은근히 잠식해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선생은 두 번째 방법의 도사야 도사. 난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뭐 실은 점주들 데려다 술 사주는 거죠. 작년에 마멀레이드 팔아서 2만 7천 벌었어요. 마멀레이드 얼마합니까 그거 팔아서 수익이 그 정도면 나도 대단한 거지. (8번 배심원을 잠시 쳐다본다) 이렇게 해서 선생이 얻는 게 뭐요- 재미? 갠 유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목쉬기 전에.

8번 배심원 여기서 쉬나 야구장 가서 쉬나 뭐가 다르죠?

7번 배심원 다를 게 없지 전혀 다를 게 없지.

7번 배심원 배심원실로 돌아간다.
6번 배심원 변소에서 나와 화장실에 있는 세면기로 가 손을 씻는다.

6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다들 성격이 대단하셔.

8번 배심원 뭐 누구나 그렇죠.

6번 배심원 그 아들놈 얘기 하던 사람, 목소리 크고 몸집이 이만한, 그 사람 말하는 거 봤어요?

8번 배심원 네.

6번 배심원 정말 살인적인 더위군요. 당신 생각엔 아무래도 여기 더 있어야 할 것 같죠?

8번 배심원 모르겠습니다.

6번 배심원 개가 유죄인건 확실해요.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사실 벌써 끝났어야 됐어요. 뭐 나야 상관없지만. 잘 안 될 거예요.

8번 배심원 미소 짓는다.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8번 배심원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6번 배심원 제가 선생을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크게 뭘 좀 착각하신 거 같아요. 시간낭비 하시는 거 같아서요.
 8번 배심원 당신이 저 피고석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6번 배심원 가정같은 건 잘 해보지 않아서요. 전 그냥 노동자예요. 그런 건 우리 사장 소관이지. 그래도 한 번 해보죠. 당신 생각대로 다 설득했는데 개가 진짜 아버지를 찔러 죽인 놈이라면요?

6번 배심원 잠시 8번 배심원을 바라보다 배심원실로 간다. 8번 배심원 그 자리에 잠시 서있다. 우린 이 한마디가 바로 그를 괴롭히는 문제라는 것을 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끝내 진실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화장실의 불을 끄고 배심원실로 간다.

배심원장 자, 다들 앉으세요.
 2번 배심원 아무래도 저녁도 시켜 달라고 해야겠네요.
 배심원장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먼저 말씀하실분?

잠시 사이, 4번 배심원과 6번 배심원 동시에 말을 시작한다.

6번 배심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요 (4번 배심원에게) 미안합니다.
 (동시에)
 4번 배심원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 배심원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6번 배심원 아니요. 말씀 끝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4번 배심원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6번 배심원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뭐 별 거 아니지만, 그래도... (8번 배심원에게) 그 소년은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어요. 맨날 패고 맞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일 개가 안 했으면 누가 했다는 건가요? 누가 왜? 그게 제 질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8번 배심원 제가 아는 한 우린 이 사건에 기소된 저 소년이 아무런 의심할 바 없이 유죄나 무죄냐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자의 살인동기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소관 밖입니다. 경찰소관이죠.
 4번 배심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살인동기가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6번 배심원에게 고개를 끄덕이곤) 여기 선생님이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누군가 그를 죽였다. 만일 그것이 소년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그랬을까?
 3번 배심원 모젤레우스키.

7번 배심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이름이 나오는구만.

4번 배심원 농담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3번 배심원 아 네 미안합니다. 너무 좀 분위기가 그런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4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당신이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그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8번 배심원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결코 ‘모범시민’은 아니었죠. 소년의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 개 아버지에 대해서 쪽 요약했잖아요. 감옥에도 한 번 갔다왔고, 그렇게 경마장에 가 살면서도 그렇게 지기만하는 사람도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허구한 날을 보냈고 술 취해서 주먹싸움에도 여러 차례 연루됐었죠. 보통 그게 다 여자문제였고요. 거칠고, 포악하고, 제 성질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도소에 같이 수감됐던 제소자 중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마권업자한테, 아니면 그가 폭력을 가했던 어떤 사람, 그가 관계했던 여자에게도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이 술 마시고 어울렸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10번 배심원 참, 세상에 야 별 개똥같은 소리 다 들어보네. 이봐, 우리도 그 애비란 작자가 그냥 똥자루로 살았다는 건 다 알지만,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8번 배심원 그렇게 단정하진 않습니다. 어떤 용의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제 대답을 드린겁니다.

9번 배심원 (4번 배심원을 가리키며) 저 분이 이분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지.

10번 배심원 여긴 죄다 변호사야!

3번 배심원 당신 그럼 이 질문에 한 번 대답해봐요. 아래층 사는 노인이 소년이 소리지르는 걸 들었어. “죽여버릴거야” 그러자마자 몸이 마루바닥에 쿵하고 쓰러지는 소릴 들었어. 그러고 나서 그 소년이 집에서 도망가는 걸 봤어. 당신한테 그게 무슨 소리로 들리는데요?

8번 배심원 천정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그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3번 배심원 천정을 통해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위층에도 똑같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더럽게 뜨거운 여름밤이었다고요.

8번 배심원 어쨌든 목소리는 다른 아파트에서 들려왔고, 목소리, 그것도 악쓰는 음성을 분간해 낸다는 건 쉽지 않죠.

배심원장 검사가 법정에서 증명했었죠. 눈 가리고 다섯 개 목소리 중 개 목소리를 정확히 가려냈어요.

8번 배심원 그거야말로 그 지역 검사가 우리 앞에서 소한겁니다. 그 노인은 개 목소리를 잘 알아요. 그 아파트에서 산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몰라요. 아래층에서 정확히 음성을 분간해 낼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면... 아니 그 노인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년 생각이 났고, 그 소년을 생각하면 그 소리가 소년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4번 배심원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배심원 당연히 그렇지 (8번 배심원에게) 이것 봐요. 그 늙은이는 개 아버지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 15초 후에 개가 도망가는 걸 봤어요. 그 애를 직접 봤다니까.

12번 배심원 그럼요. 그리고 그 건너편 여자를 잊으면 안돼요. 그 여자는 열린 창문으로
 개가 아버질 찢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8번 배심원 아직은 아니예요. 충분치 않아요.
 7번 배심원 들었어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애길하지.
 4번 배심원 그 여자는 지나가는 전철 창문을 통해서 살인현장을 목격했어요. 그 전철은
 모두 6칸이고 여잔 마지막 두 칸이 지나갈 때 봤다고 했어요. 그 때 일은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부정한다는 겁니까.
 3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봅시다.
 8번 배심원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요.
 3번 배심원 계속 생각해 보쇼 (12번 배심원에게) 그 연필 좀 이리 쥘봐요.

**12번 배심원 연필을 3번 배심원에게 준다. 3번 배심원 모눈종이 위에 오목을
 두는 것이 분명하다.**

8번 배심원 혹시 고가 철도가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몇 초...

**8번 배심원 3번 배심원과 12번 배심원이 종이위에 오목을 두고 있는 것을
 본다. 종이를 잡아채서 갈갈이 찢은 다음 꾸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3번 배심원 뭐야!
 8번 배심원 지금 장난합니까?
 3번 배심원 (소리친다) 뭐야 이새끼야?
 12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 아 아 참으세요.
 배심원장 자 여러분 앉읍시다.
 3번 배심원 주먹이 운다 울어.
 배심원장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맙시다.
 3번 배심원 지가 뭐야 도대체! 별 미친놈을 다보네 진짜!
 10번 배심원 괜찮아, 잊어버려. 저런 사람은 상대해주면 점점 더 해.
 3번 배심원 “지금 장난합니까.” 언제부터 지가 여기 반장이야.
 배심원장 자 다 끝났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3번 배심원 뭐가 끝나요 사과를 해야지.
 6번 배심원 당신은 욕했잖아 피장파장이야. 자 이제 저 분 얘기가 마저 들어요.
 8번 배심원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고가전철이 보통속도로 한 지점을 통과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7번 배심원 그걸 알아서 뭐하실려구?
 8번 배심원 얼마나 걸릴까요?
 4번 배심원 난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8번 배심원 (5번 배심원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5번 배심원 몰라요 한 10에서 12초
 3번 배심원 그걸 알아서 뭐하는데.
 8번 배심원 저도 대략 그럴 것 같습니다만, 다른 분은?

11번 배심원 저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번 배심원 글썄 그걸 알아서 뭐하는데?

8번 배심원 (2번 배심원에게) 어때요?

2번 배심원 대략 10초 쯤.

4번 배심원 좋아요 10초. 그래서요?

8번 배심원 그러니까, 전철 여섯 량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 그 집 창문에서 손을 뻗으면 철로가 거의 닿을 정도니까 그 지점을 바로 살인이 목격된 지점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맞죠?

5번 배심원 맞습니다.

8번 배심원 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누구 고가 철로 옆에서 살아 본 적 있으십니까?

6번 배심원 요 며칠 전에 고가 철로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집을 칠했어요. 난 집 칠 전문이예요. 그 집에서 삼일간 일했어요.

8번 배심원 어땠습니까?

6번 배심원 뭐가요?

8번 배심원 소음이요.

6번 배심원 우린 별의별 악조건 속에서도 다 일하는데요 뭐, 그 정도는 참을만 해요.(웃는다)

8번 배심원 전 고가철로 옆 아파트 2층에서 살았습니다. 창문 열어 났을 때 전철이 지나가면 그 소음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다 잊어버리죠.

3번 배심원 그래 당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 그래서 요점을 말해봐요.

8번 배심원 네. 자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봅시다. 첫째, 아래층 노인은 소년이 “죽여버릴거야”하고 말하자마자 쿵하는 소릴 들었다고 했어요, 1초 후에, 맞죠?

2번 배심원 맞습니다.

8번 배심원 둘째, 그 반대편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말하길 창문 너머로 전철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두 칸이 지나갈 때 살인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맞죠? 마지막 두 칸.

3번 배심원 맞아요, 요점을 말하라고 요점을.

8번 배심원 자 우린 모두 고가 철도가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고 동의 했어요. 그 여자가 마지막 두 칸이 지나가는 동안 목격했다고 했으니까 그 쿵 소리는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들렸던 겁니다. 아울러, “죽여버릴거야”라는 소리가 들린 후 1초 후에 그 소리가 들렸다면 목소리 또한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노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3번 배심원 바보같은 소리! 못 들긴 왜 못들어.

8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3번 배심원 개가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 그러면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왜 못 들어.

8번 배심원 “죽여버릴거야”라고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소음 속에서 그게 누구 목소린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분간합니까.

3번 배심원 당신 지금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고, 누군들 그렇게 정확할 수 있겠소?

8번 배심원 제 생각에 한 사람을 전기의자로 보낼 수도 있는 증언은 그 정도 정확성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번 배심원 노인이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6번 배심원 네,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소음 속에서...
 3번 배심원 지금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요?
 5번 배심원 합리적으로 따져서...
 3번 배심원 당신 미쳤어요? 그 노인이 뭇 땀에, 뭘 얻을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9번 배심원 관심이겠쥬.
 3번 배심원 아이고 전도사님 이젠 소설도 쓰시나요? 아예 신문에 연재를 하시죠, 삼달러씩 준다는데.
 6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 이봐!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겠어?

3번 배심원 6번 배심원을 쳐다보고는 경멸하는 낯으로 무시해 버린다. 6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로 가서 그의 팔뚝을 꼭 쥐어 잡고 말한다.

난 노인한테 그런 말버릇 하는 놈은 가만 안 댈.
 3번 배심원 손 안 치워?
 6번 배심원 존경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또 그따위로 지껄이면 아주 뭉게 버린다.

6번 배심원 3번 배심원의 팔뚝을 놓아주고 9번 배심원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셔두 됩니다. 왜 그 노인이 거짓말 했을 거라구요?
 9번 배심원 난 아주 오랫동안 그 노인을 지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봤는지 모르겠지만 소맷단이 다 트여져 있었지요. 법정에 나오면서 그래도 그 옷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 떨어진 양복 한 벌 밖에 없는 늙은이가 천천히 증언대로 올라갔어요. 왼쪽 발을 절었지만 창피해서 감추려고 애를 썼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엔 내가 제일 그 노인에 대해서 잘 알거라고 봐요. 자기 이름이 한 번도 신문 구석에 나 본 적도 없는 아주 조용하고 겁 많고 보잘 것 없는 늙은이. 일흔 다섯해를 살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모르고, 아무도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누군가 자길 알아주길 원하죠, 자기 말을 들어주기 원하고, 한 번 이라도 좋으니 자기 의견이 반영되길 원해요. 그런 아주 중요해요. 슬며시 사라진다는 건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7번 배심원 잠깐만요. 아니 그럼 그 노인네가 주목받고 싶어서 거짓말 했다는 겁니까 지금?
 9번 배심원 아니요, 거짓말 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자기가 분명 그 소리를 들었고 개 얼굴을 봤다고 믿었을 겁니다.
 10번 배심원 그런 터무니없는 소린 내 생전 처음 듣네. 어떻게 그렇게 잘도 지어내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9번 배심원 당황스러워 고개를 떨군다.

4번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헛갈리지 맙시다.

11번 배심원 그 사실이란 게 그걸 제시하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얼마든지 윤색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번 배심원 목캔디 드실 분?

10번 배심원 나 하나 주소.

**2번 배심원 10번 배심원에게 목캔디 하나를 건네준다
10번 배심원 하나 받는다.**

고맙소.

12번 배심원 뭐 어떤 말을 해도 좋지만, 난 도무지 어떻게 개를 무죄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8번 배심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 노인이 소년이 “죽여버릴거야” 하는 소릴 들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건 이미 증명했지만-

10번 배심원 무슨 소리야 언제 증명했어?

8번 배심원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들 일상에서 이런 말은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수백번은 될 겁니다. “당신 또 그러면 죽여버릴거야 아주.” “너 이놈의 자식, 아주 같이 죽자.” “저런 놈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 매일같이 그런 말을 사용하지만 정말 죽인다는 뜻은 아니죠.

3번 배심원 잠깐! 지금 또 무슨 괴변을 늘어 놓는 거요. 개가 뭐라 그랬어요 “죽여버릴거야.” 창자에서부터 악을 쓰면서 내질렀어.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런식으로 소리치는 놈은 분명히 그런 의사가 있는 거야.

2번 배심원 어- 저기요. 생각나는데 옆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하고 말싸움이 붙었는데 그 놈이 나한테 쥐톨만한 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3번 배심원 이것들 봐요, 이 친구는 지금 실재가 아닌 걸 믿게 하려고 하고 있다구. 그 놈이 죽일거라고 했고 죽였다고요.

8번 배심원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그 소년이 당신 생각대로 말 한 거라면 온 동네가 다 듣게 그렇게 소리질렀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갠 그 보다는 영리합니다.

10번 배심원 뭐가 또 영리해 그놈이? 무식한 동네 양아치가. 존댓말도 제대로 못 배운 게?

11번 배심원 선생님도 시종일관 반말이시잖아요.

5번 배심원 저 “무죄”로 바꾸겠습니다.

7번 배심원 농담이시겠지?

5번 배심원 말했습니다.

배심원장 ‘무죄’요?

5번 배심원 예.

배심원장 9대 3. 유죄 우썅니다.

7번 배심원 그 말씀 하나 남겨놓고 지금 돌아가실 거 아니면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왜요? 저 사람이 만든 스토리 때문에? 저 분은 탐정소설을 한 달에 한 권씩

쓸 수 있는 분이예요, 그 길로 갔으면 때론 벌었을 사람이라고 (5번 배심원에게) 아니 지금 사실은 안 보고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개가 그 애비를 죽였다는데, 개 변호사조차도 처음부터 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개 변호사도 다 봤잖아요? 갠 전기의자로 가야 돼.

8번 배심원 그래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됐는데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이 자백을 한 경우. 가끔씩... 가끔씩 당신이 진실로 믿는 것이 거짓일 수 있는 것입니다.

7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지금 이 분한테 얘기하잖아 (5번 배심원을 가리킨다) 당신한테 물어봤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8번 배심원에게) 이봐요, 개 변호사 있었지? 그 사람이 변호를 맡아서 했어 당신이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할 말이 더 많아?

8번 배심원 그 변호사는 법정 변호사였어요.

7번 배심원 그래서요?

8번 배심원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 변호사는 이 사건 맡는 걸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죠, 선임된 걸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돈도, 보람도, 이길 확률도 없고 젊은 변호사가 바랬던 상황이 아니죠.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튼튼한 방패로서 좋은 싸움이 될 수 있는데 그 변호사는 당신이 이미 말했듯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시다.

7번 배심원 당연히 믿질 못하지. 누가 믿어줘요, 신이나 누가 내려온다면 모를까? (자기 손목시계를 보고 벽시계도 본다) 벌써 몇 시가 저 시계 좀 봐요 좀!

11번 배심원 실례합니다만, 제가 몇 자 적어봤는데요.

10번 배심원 읽어야지 이제!

11번 배심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분 하시는 말씀을 귀기울여 들어봤는데요 (8번 배심원)-제 생각에 일리 있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판에 제시된 사안으로만 봤을 땐 유죄로 보였는데 다시 깊게 생각해 보면-

10번 배심원 뭐야 또?

11번 배심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아버지 가슴을 찌르고 달아났습시다. 이게 12시 10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에 검거됐습니까. 3시경에 집에 돌아와서 복도에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습시다. 제 질문은 정말 개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왜 세 시간 후에 돌아왔을까요? 잡힐까봐 무섭지 않았을까요?

3번 배심원 봐요- 갠 그 칼 땀에 돌아온 거예요. 칼을 그렇게 꽂아 놓는다는 건 아무래도 좋지 않지.

7번 배심원 그럼 가족끼린데.

4번 배심원 (11번 배심원에게) 소년은 그 칼이 자기 거 란걸 주위의 몇 명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수거해야 했던 거예요.

11번 배심원 그 칼이 단서가 될 것을 염려 했다면 왜 처음에는 두고 갔을까요?

4번 배심원 처음에는 당황해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칼을 그대로 두고 왔다는 걸 생각해 낸거죠.

11번 배심원 그러면, 당황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칼에 남겨진 지문을 지우고 도주할 정도로

침착했는데 언제 그 ‘당황’이 시작 됐고 언제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3번 배심원 지금 자꾸 지엽적인 문제만 갖고 생각하시는데 갠 칼을 뽑아서 처리하려고 돌아왔단니까요.

11번 배심원 세 시간 후에?

3번 배심원 그래요 세 시간 후에.

11번 배심원 내가 그 소년이라면 아버지를 죽이고 세 시간 후에 돌아올 거 같지 않아요. 경찰이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칼을 남겨놓고 왔던 아니었던 간에.

3번 배심원 가만, 당신 “유죄”로 손 들었잖아요. 어느 편이야 당신?

11번 배심원 한쪽 편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할 뿐입니다.

12번 배심원 이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 제가 만약 그 소년이었다면 난 기회를 봐가지고 그 칼을 가지러 갔을 겁니다. 내 생각에 갠 아무도 자길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시체도 아직 발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정 무렵이었잖아요, 다음날 아침까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11번 배심원 실례합니다만,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리면, 건너편 여자가 살인 장면을 목격한 후에 그러니까 전철이 지나간 후죠, 비명을 질렀고 잠시 후에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러면 소년은 분명히 비명 소리를 들었을 테고 누군가 뭘 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테죠. 정말 개가 살해를 했다면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잖아요?

4번 배심원 두 가지요. 하나, 당황해서 비명 소리를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아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질렀을 수도 있죠. 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벌인 일 하고 연결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지역은 비명 같은 건 수시로 들리는 곳이니깐.

3번 배심원 옳소! 대답이 됐습니까?

8번 배심원 설령. 설령 개가 아버지를 찌르고, 여자의 비명 소리를 못 듣고, 당황한 상태에서 도망가고, 세 시간 후에 진정하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칼을 찾으러 돌아왔다 치더라도, 설령 이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제 생각에는 개가 살해현장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배심원 의심의 여지라니? 지금 무슨 잠꼬대같은 소릴 하는 거야? 그 늙은이가 개가 도망치는 걸 봤잖아. 이 사람 지금 사실을 그 뭐냐 호도하고 있다고 호도. (11번 배심원에게) 그 노인네가 개가 그 집에서 12시 10분에 도망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어? 봤어요 못 봤어요?

11번 배심원 봤다고 말했습니다.

10번 배심원 봤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이 사람들 (11번 배심원에게) 그러면 건너편 여자는 개가 아버질 찌르는 걸 봤다고 했습니까 못 봤다고 했습니까? 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어? 여긴 다 옛장수들만 모였나? 증인들이 증언대에 왜 나오는데? 운동

삼아 나오나? 여기 지금 사실들이 온통 뒤엉키고 엉망진창이 됐잖아. 증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다 의심하고, 이런 경우가 어딴나?

5번 배심원 증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10번 배심원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배심원장 소리는 지르지 맙시다.

10번 배심원 난 소리 좀 질러야겠어, 왜? 이 친구들이 지금 말꼬리를 붙잡고 이리 물고 늘어지고 저리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 비명을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뭐가 달라? 그런 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무시하고 말야. 갑자기 모두...

8번 배심원 다시 한 번 투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10번 배심원 이봐, 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배심원장 투표 제의가 있으니까 다들 좀 앉아 주시죠.

서 있던 배심원들 자리고 가 앉는다.

3번 배심원 뭘 위해서 다시 투표합니까?

배심원장 모릅니다. 저 분이 제안을 하셔서.

3번 배심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긴 처음이네.

2번 배심원 (유쾌하게) 얼마 안 걸리는데요 뭐.

배심원장 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죄”로 생각하는 분들만 손 들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배심원, 8번 배심원 그리고 9번 배심원 손든다.

여전히 같네요. 하나, 둘, 세분 “무죄” 아홉분 “유죄”

7번 배심원 그럼 이제 또 어떡하는 거요.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 번 떠들어 볼까요? 어떡할거냐고요?

11번 배심원 실례합니다. (천천히 손을 올린다) 저 “무죄”로 하겠습니다.

7번 배심원 박수!

3번 배심원 이것 봐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모두 미쳐가는 거예요 뭐요? 이놈은 유죄야, 사실에 좀 집중을 해 보란 말이에요 사실에. (4번 배심원에게) 저 사람한테 말 좀 해봐요 좀. 끝 정말 잘돼간다.

배심원장 투표는 8대 4 ‘유죄’ 우습습니다.

3번 배심원 그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불쌍한 건 나도 알겠는데 지금 뭐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자는 것도 아니니까 (11번 배심원에게) 이유나 좀 말해봐요, 왜 바꾼 거예요?

11번 배심원 내 결정을 당신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의심의 여지가 생겼어요.

3번 배심원 의심의 여지? 그런 건 그냥 말일 뿐이에요. (테이블에 꽂혀있는 접이칼을 뽑아 손에 들고는) 이거 잘 봐요. 당신이 방금 유죄라고 편들어 준 놈이 이 칼을 지 애비 가슴에 내리 찌었다고. 이걸 잘 좀 보라구요 좀, 의심의 여지란 말이

나오나.

9번 배심원 그 칼이 아니라 다른 칼이지.

3번 배심원 대단하십니다. (칼을 테이블에 내려 찍는다)

7번 배심원 이거 지금 미친 짓이야. (8번 배심원에게) 당신 지금 여기 앉아서
허공에서부터 이야기를 막 뽑아내고 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도대체 뭘
믿었으면 좋겠소?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이 분이 프시와 퍼포가 붙었을 때
주심을 봤으면 퍼포가 이겼다고 손들어 줬을 사람이에요. (8번 배심원에게) 그
늙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뛰어가서 그 놈이 찢러죽이고 15초
후에 도망가는 걸 보지도 않았다고 믿길 바래요? 그냥 주먹 받으려고 한 번
해 본 얘기다.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돼요?

5번 배심원 잠깐만요.

7번 배심원 네 방금 밀워키 선수 타석으로 들어섰습니다.

5번 배심원 그 노인이 현관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7번 배심원 날아갔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달라요 거기까지 갔으면 된 거지.

6번 배심원 노인이 뛰어갔다고 했어요, 내가 그건 분명히 들었어요.

5번 배심원 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게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4번 배심원 노인이 말하길 침실에서 현관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녜요?

8번 배심원 잠깐, 침실이 어디였죠?

10번 배심원 아래층 어디겠지. 난 당신이 모든지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있었구만.

8번 배심원 배심원장님 그 아파트 평면도를 좀 보고 싶은데요.

7번 배심원 아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로잡게.

8번 배심원 배심원장...

배심원장 들었습니다.

배심원장 출입문으로 가서 노크한다.
경비 문을 열고 들어온다.
배심원장 짧게 얘기한다.
경비 나가서 문을 잠근다.

3번 배심원 그건 또 뭐에다 쓰실려구? 왜 이방에서 당신만 계속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하는 건데?

5번 배심원 나도 좀 보고 싶어요.

3번 배심원 난 시간 낭비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4번 배심원 만약 여기서 시체 발견 지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 가자면...

8번 배심원 아니요, 누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전 다만 작년에 뇌출혈로 한 쪽
다리를 끌면서 다니는 노인이 침대에서 현관까지 15초 안에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을 뿐입니다.

3번 배심원 20초라고 했어요.

8번 배심원 15초라고 했습니다.

3번 배심원 분명히 20초라고 했다니까, 왜 자꾸...

11번 배심원 15초라고 했어요.
 3번 배심원 그 노인네가 15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건 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9번 배심원 하지만 15초라고 했고, 자기가 분명하다고까지 말했어요.
 3번 배심원 아니 늙은이가, 다들 봤잖아. 말도 잘 못 알아듣고 횡설수설했는데 뭐는 제대로 기억했겠어?

*경비 커다란 평면도를 들고 들어온다.
 아파트의 평면도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단순화한 그림이다.
 침실은 고가철로 쪽으로 나 있고, 복도를 따라 공간이 늘어선 구조다. 침실에 X표가 되어 있고 그곳이 시체가 발견된 지점이다. 현관 바깥쪽으로 건물 계단의 위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각 방의 명칭이 기입되어 있고 거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배심원장 평면도를 받는다. 경비 나가서 문을 잠근다.*

12번 배심원 그걸 어떻게 계산 하겠다는 겁니까. 노인이 분명하게 봤다고 했는데.
 8번 배심원 자 그 노인의 말을 세세하게 한 번 따져 봅시다. 몸체가 바닥에 쿵하고 쓰러진 후에 현관쪽으로 뛰어가는 발자국 소릴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발자국 소리는 계단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최대한’ 빨리 현관으로 갔고 15초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자, 그 살인자가 바로 달아나기 시작했다면-
 12번 배심원 바로 달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8번 배심원 노인은 바로 도망갔다고 증언했습니다.
 7번 배심원 당신 아무래도 그 아틀란틱시티 소음으로 골 뻐개지는 아파트까지 한 번 갔다 오셔야 할 거 같은데?
 6번 배심원 이봐, 거 재미없는 농담 좀 그만할 수 없어?
 7번 배심원 내일도 밥벌이 나가도 싶으면 듣기 싫어도 듣는 게 좋아.
 10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자, 그림판도 갖다 놓고 했는데, 이제 어찌지?
 8번 배심원 (배심원장에게) 잠시만요 (평면도를 달래서 의자에 세워 놓는다) 이건 살인이 일어난 아파트입니다. 노인의 아파트는 바로 밑이고 구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가 고가철로입니다. 침실. 작은 방, 욕실. 거실. 부엌. 여기가 복도. 여기가 현관입니다. 여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자, 노인은 여기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실을 가리킨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갔고, 현관문까지 가서 소년이 달음질쳐 내려가는 순간에 그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맞죠?
 3번 배심원 19번도 더 얘기했어요.
 8번 배심원 몸체가 쓰러지고 15초 후.
 11번 배심원 예.
 8번 배심원 노인의 침대는 여기 창가에 있습니다. (평면도를 가까이 들여다 본다) 침실문까지 12피트입니다. 복도의 길이가 42피트 6인치, 자 침대에서 일어나 12피트를 걸어서 문을 열고, 42피트를 걸어서 현관문을 엽니다 - 15초 안에.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번 배심원 그럼 할 수 있지.
 11번 배심원 천천히 걷는 것 밖에는 못하는데요, 증인석에 오르기 위해서 부축을 받아야만 했어요.
 3번 배심원 아주 긴 거리처럼 말하지만, 아니예요.
 9번 배심원 중풍 맞은 노인네한테 먼 거리죠.

8번 배심원 자기 의자를 옮겨다 침대를 만든다.

8번 배심원 이게 노인의 침덱니다.
 10번 배심원 뭐하는 거요?
 8번 배심원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 봅시다.
 3번 배심원 여기서 해보긴 뭘 해봐요, 그게 중요한 거면 개 변호사가 벌써 했겠지.
 5번 배심원 그 사람은 생각을 못했겠죠.
 10번 배심원 아니 생각을 못했을 거라니, 그 변호사는 뭐 바본가 그거 하나 생각 못하게, 그 기본적인 걸?
 5번 배심원 아저씨도 생각했어요?
 10번 배심원 이것 봐요 똑똑한 아저씨, 내가 생각했었느냐는 지금 문제가 아니지.
 배심원장 자자 이제 진정합시다.
 10번 배심원 그 변호사는 일부러 안 한 거야 왜냐면 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나올테니까, 안 그랬을 거 같아요?
 배심원장 자.
 8번 배심원 예, 여기가 침대. 침실이 12 피트니까. (12피트를 보폭으로 잴다)
 3번 배심원 미쳤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11번 배심원 가만 좀 봅시다.

12번 배심원 자기 의자를 빼서 8번 배심원에게 준다.

8번 배심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그 의자를 놓는다.

8번 배심원 고맙습니다. 여기가 침실 문이구요, 복도는 43 피트가 약간 넘습니다. 저 벽까지 갔다가 오면서 재겠습니다.

8번 배심원 보폭으로 잴다, 신중하게 족장을 이용해서.

10번 배심원 이제 완전히 돌아구만. 계속 이렇게 시간낭비 시킬거야?
 8번 배심원 ...열 둘... (멈춰섰다가 10번 배심원에게 돌아선다) 당신 말대로라면 15초면 충분하단 거죠. 한 번 봅시다. (다시 잴다. 마음속으로 센다. 벽까지 가 닿는다.)

모두 조용히 지켜본다.

(돌아서서 나머지 길이를 잴다)...삼십구, 사십, 사십일, 사십이, 사십삼. 네,

다른 의자 하나 주시겠습니까?

6번 배심원 자기 의자를 빼서 8번 배심원에게 준다.

8번 배심원 의자를 받아서 그 위치에 놓는다.

이게 건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도로 나가는 문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체인도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 초침 있는 시계 가지신 분?

2번 배심원

저요.

8번 배심원

준비되면 발을 한 번 굴러 주세요. 그게 바로 몸체가 쿵하는 소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세요.

8번 배심원 의자 두 개를 붙여 놓은 곳에서 길게 눕는다.

7번 배심원

모여라 공동산이구만.

3번 배심원

내 생전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

8번 배심원

자 준비됐습니다.

2번 배심원 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다린다.

10번 배심원

뭐하는 거요, 시작하지.

2번 배심원

초침이 12까지 와야죠.

모두 기다린다. 2번 배심원 갑자기 발을 구른다. 8번 배심원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다. 다리를 돌려 침대 아래로 향하고 일어선다. 2번 배심원 시계로 시선고정. 8번 배심원 침실 문으로 표시해 놓은 의자까지 다리를 절며 질질 끌며 간다. 거기서 문을 열고 나가는 시늉을 한다. 다시 43피트 복도를 그렇게 간다.

10번 배심원

속도를 좀 내, 그것 보다 두 배는 빠르겠네.

11번 배심원

이게 법정에서 걸었던 것 보다 두 배는 더 빨라요.

8번 배심원

(여전히 절룩거리며)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 보죠.

8번 배심원 약간 더 속도를 낸다. 벽에 닿았다가 현관문으로 삼은 두 번째 의자를 향해 간다.

3번 배심원

이거 뭐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모두 8번 배심원이 마지막 의자에 다다르는 걸 지켜본다. 상상의 체인 잠금 장치를 풀고 상상의 문을 연다.

8번 배심원

정지!

2번 배심원 네.

8번 배심원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2번 배심원 십오. 이십. 삼십. 삼십오. 사십, 정확히 42초요.

8번 배심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은 소년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몇 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위층에서 사람이 쿵하고 마루에 나가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은 일어나서 문으로 갑니다. 누군가 계단으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걸 그 소년이라고 추정합니다.

6번 배심원 가능한 애깁니다.

3번 배심원 추정해? 이것보세요 들. 내가 진짜 별 속임수를 다 겪어봤지만 - 오늘 본 게 그 중 최고네요. 당신 처음에는 가난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냐 어쩌구 하면서 혼자 착한 척 다해놓고, 뜯구름 잡는 애길 이것저것 만들어서 여기 있는 아줌마들 완전히 홀려놓더니, 지금 뭐라고? 난 안 통하니까 그만해 좀! 당신들 도대체 제정신이야? 당신들 모두 개가 유권자 다 알고 있잖아. 그런 놈은 태워 죽여야 돼. 잡아 죽여야 할 놈이 지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구.

8번 배심원 잡아 죽여요? 당신이 사형집행관입니까?

3번 배심원 그래, 내가 사형집행관이다.

8번 배심원 그 스위치를 누르고 싶으신가요?

3번 배심원 이런 놈이라면 얼마든지 눌러 주지.

8번 배심원 참 불쌍하십니다.

3번 배심원 건들지마 당신.

8번 배심원 여기 들어올 때부터 당신 자기가 무슨 악을 소탕하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굴었어.

3번 배심원 시끄럽다고 했어.

8번 배심원 그런데 당신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애가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사실 때문이 아니라고.

3번 배심원 닥쳐!

8번 배심원 당신이 악마야.

3번 배심원 야 이 개새끼야!

3번 배심원 8번 배심원을 향해 거칠게 돌진한다.

8번 배심원 미동도 않고 서 있다. 5번 배심원과 6번 배심원 3번 배심원을 뒤에서 붙잡는다. 팔을 단단히 뒤로 붙잡힌 3번 배심원의 얼굴은 분노로 검붉어졌다.

이거 놔! 죽여 버릴꺼야! 죽여 버릴꺼야!

8번 배심원 (조용히) 진짜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지요?

3번 배심원 5번 배심원과 6번 배심원으로부터 끌려난다. 몸부림은 하지 않지만 독기어린 눈으로 8번 배심원을 본다.

커튼이 내려온다.

1막 끝

제2막

같은 곳, 곧이어.

커튼이 올라가면 모든 배심원들 1막 끝에서와 같은 위치에서 3번 배심원을 보고 있다. 침묵.
3번 배심원 창문으로 향하고 사람들 흩어진다. 어색한 침묵.

경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경비 무슨 일 있습니까?
배심원장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심원장 테이블에서 평면도를 수거한다.

언쟁이 좀 있어서요, 별 일 없습니다.

배심원장 평면도를 경비에게 준다.

이건 다 봤어요.

*경비 평면도를 받아서 방안을 세심히 살핀 후 나간다. 문을 잠근다.
사이. 모두 3번 배심원을 본다.*

3번 배심원 뭘 봐요?

다들 겸연쩍게 몸을 돌린다. 몇 몇은 자리로 돌아간다.

12번 배심원 뭐-누군가 다시 시작해야 될 거 같은데.
2번 배심원 배고픈데요 (배심원장에게) 어디 나가서 먹을 수 있게 해주나요?
배심원장 내가 어떻게 알아요?
2번 배심원 혹시 결론이 안 나면 집에 안보내주는 거 아녜요? 아들놈이 불결이에
 걸렸는데 아빠 보고 싶다고. 아내가 그러는데 흐루시췌프 같데요.
11번 배심원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린... ‘통지’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선 안되겠습니다.

12번 배심원 아무도 말씀 없으시면 제가 깜짝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현관문 앞에다 던져 놓고 고양이가 와서 핥아먹나 한 번 봅시다.

배심원장 고양이가 핥아요? (웃는다)

12번 배심원 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5번 배심원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찌는 거 보니까 소나기가 올 모양인데요.

4번 배심원 넥타이와 상의 차림으로 전혀 미동도 않는 모습이다.
5번 배심원 4번 배심원에게

더위 안타세요?

4번 배심원 안 탑니다.

6번 배심원 투표 한 번 다시하면 안되니까?

7번 배심원 아싸라비야.

6번 배심원 해요?

배심원장 저야 뭐 괜찮지만,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3번 배심원 손습시다. 누가 어딘지 보게.

배심원장 안 될 거 없죠. 반대하시는 분? 야간 8대 4 유죄우세였습니다. 저부터요. 전 “유죄” 2번은요?

2번 배심원 “무죄”

배심원장 3번?

3번 배심원 “유죄”

배심원장 4번?

4번 배심원 “유죄”

배심원장 5번 배심원?

5번 배심원 “무죄”

배심원장 6번 배심원?

6번 배심원 “무죄”

배심원장 7번 배심원?

7번 배심원 “유죄”

배심원장 8번?

8번 배심원 “무죄”

배심원장 9번 배심원?

9번 배심원 “무죄”

배심원장 10번 배심원?
 10번 배심원 “유죄”
 배심원장 11번 배심원?
 11번 배심원 “무죄”
 배심원장 12번 배심원?
 12번 배심원 “유죄.”
 배심원장 6대 6.
 7번 배심원 연장전이네.
 10번 배심원 6대 6. 당신들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냐, 그런 놈을!
 9번 배심원 그런 놈이란 말부터 맞지 않아요, 사실만 갖고 판단해야죠.
 10번 배심원 제발 그놈의 사실타령 좀 하지 말아요. 그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지.
 9번 배심원 그게 지금까지 여기 이분이 (8번 배심원을 가리킨다)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당신 아까부터 계속 소리지르는데.

**8번 배심원 9번 배심원의 어깨에 지그시 손을 올린다.
 9번 배심원 손길을 느끼고 자리에 앉는다.**

11번 배심원 십년만 젊었어도 (숨이차서 말을 못있는다) 폭폭 찌네.
 9번 배심원 물 한 잔 드릴까요?
 됐어요.

**주위가 현격하게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겁도록 정적이다. 음수대에서 꼬르륵
 꼬르륵 물소리가 들리고 그 주위에서 7, 10, 2번 배심원이 제각각 물을
 마신다.**

2번 배심원 한차례 쏟아 부을 것 같죠?
 7번 배심원 파란눈 아저씨, 아니 뭘 보고 의견을 바꾼거예요?
 2번 배심원 저요?
 7번 배심원 그 쪽은 뭐하나 똑부러지게 믿을 게 없잖아, 안 그래요?
 2번 배심원 아니죠, 세부사항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10번 배심원 세부사항!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난척하면서 심각하게 밀어부치니까 훌쩍 뒤집힌거지.
 2번 배심원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10번 배심원 에이, 저 사람들처럼 당신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뒤죽박죽 된거라고 지금.
 2번 배심원 이거보세요. 저한테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하세요?

10번 배심원 무시하고 가버린다.

(강하지 않게) 떠벌이!

더 어두워졌다. 방안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모두 한 줄기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비가 내린다.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 들린다. 다들 머리를 창문 쪽으로 향한다. 비가 퍼붓는다.
4번 배심원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소로 퇴장한다.
8번 배심원 비가 들이치자 창문에서 물러난다. 배심원장 일어나 방불을 켜다. 천정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꺼진다. 빗소리는 연극의 끝까지 계속된다. 배심원장 8번 배심원 쪽으로 이동한다.

배심원장 와 저 비오는 것 좀 봐요. 좀 시원해지겠네요.
 8번 배심원 그러겠네요.
 배심원장 거 참 시원하다. 저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게 11월 며칠인가였어요. 난데 없이 경기 중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3번 배심원 화장실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손을 씻는다.

우리가 7대 6으로 지고 있다가, 시작해서 공을 넘겨서 태클 재끼고 막 나가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슬래터란 놈이 있었거든요, 완전 황소같은 놈이었는데, 정말 그런 놈 하나만 다시 있었으면... 참, 내가 엔드류 제이 맥코클 고등학교 미식축구부 부감독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퀸즈에 있어요.

8번 배심원 미소로 화답한다.

7번 배심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저쪽 진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슬래터란 놈이 그냥 밀고 나가는데, 갑자기 쏟아붓는 거죠. 2분 만에 발목까지 차더라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네요, 뭐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선풍기를 가리키며) 이것 좀 누가 돌아가게 해봐요?

4번 배심원 변소에서 나와 화장실로 간다.
배심원장 벤치로 와서 났고 올라서서 선풍기를 튼다.

전등이랑 연결돼 있을텐데 분명.

3번 배심원과 4번 배심원 화장실에 같이 있다.

3번 배심원 (4번 배심원에게) 비 잘 오네요.

4번 배심원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어떻게 동수가 나오니까?

4번 배심원 고개를 끄덕인다.

놀랍지 않아요?
4번 배심원 네.
3번 배심원 아까 그 작자 나한테 악담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지가 도대체 뭘 증명했다는 거야? 나도 성질 있는 놈인데 뭐 사형집행관? 악마? 누구 정의로운 사람이 좀 나서서 바로 잡아야지 안되겠어요. 저사람 저거 순전히 나를 물어뜯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구.
4번 배심원 계획대로 아주 잘했네요. (타올 있는 쪽으로 간다) 실례. (손을 닦아 말린다)
3번 배심원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또 그러면 가만 안둬요. 내가 어떤 놈인데, 난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4번 배심원 여기 다 그런 분들만 모인 거 같네요.

10번 배심원 화장실로 거칠게 들어와서 바로 세면기로 가 손을 씻는다.

10번 배심원 나 이런 한심한 경우를 다 봤나, 장난하나 지금, 뭐? 6대 6?
3번 배심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걸 깰 방법이 없을까요?
10번 배심원 저 여섯 명은 완전히 최면에 걸려서 죽어도 안 바꿀 거야.
4번 배심원 다섯 명은 벌써 한 번 마음을 바꿨으니까 잘 하면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10번 배심원 어떻게?
4번 배심원 논리적으로 따져야죠.
10번 배심원 논리! 이런 쟁점!
3번 배심원 이분 말을 들어 봅시다. 이 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10번 배심원 내 생각에는요?
4번 배심원 네.
10번 배심원 그만 두자고 그러자고.
3번 배심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10번 배심원 저 사람들 지금 어디 사이비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처럼 똥똥 뭉쳐서, 날 샐으니까 가서 판사한테 그만둔다고 말하자고 - 이러다 정말 밤새! 아니 그깟 놈이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골 뽐개고 있어야 되냐고?
3번 배심원 지금 농담도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법정에서 선서했잖아요. 그래놓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요?
10번 배심원 왜 안돼?
3번 배심원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무죄”라고 하세요.
10번 배심원 유죄라고 생각해서 유죄라고 한거야.
3번 배심원 그래놓고 지금와서 아무래도 좋다 이거예요?
10번 배심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4번 배심원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번 배심원 무슨 소릴 듣고 싶은 건데? 왜, 그게 내 솔직한 의견이야.
4번 배심원 압니다.
10번 배심원 당신도 반대야?

4번 배심원 네.

배심원장 화장실 문을 연다.

배심원장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번 배심원 화장실을 떠난다.

10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 특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

3번 배심원 포기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다른 배심원들 불러다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텐데. 그럴려면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10번 배심원 아니 다를 게 뭐야? 보나마나 나중에 그렇게 될텐데.

배심원장 선생님들, 관찮으시면...

10번 배심원 신경질적으로 확 나간다. 3번 배심원 불 끄고 천천히 나간다.

10번 배심원 이렇게 합시다. 이러다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법정으로 가서 우리 포기한다고 말합시다.

7번 배심원 난 찬성입니다. 판사한테 말하고 개한테 기회 한 번 더 주지 뭐.

8번 배심원 법정은 평결을 포기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별로 오래 있지도 않았잖아요.

7번 배심원 어디 확인해 보자구.

11번 배심원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7번 배심원 (11번 배심원에게) 이거봐요 다른 배심원 만났으면 이놈은 보나마나 끝이야. 당신도 그건 알 거 아녜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도 자기의견 포기할 사람이 없는 거 같으니까 우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5번 배심원 당신 정말 아직도 한 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7번 배심원 없어요.

11번 배심원 실례합니다만 혹시 선생께서 '의심의 여지'란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번 배심원 내가 이해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 따위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튼 다들 똑같다니까, 먹고 살려고 이 나라에 왔으면 일단 여기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가르치려고부터 들어요. 거만하기 짝이 없어.

5번 배심원 (7번 배심원) 당신 지금 저 분이 외국에서 오셨다고 거만하다고 하는 거야? 내 보기엔 당신이 거만해. 여기서 태어난 게 무슨 벼슬이야?

11번 배심원 아니요 관찮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7번 배심원 당신 똑바로 들어. 여기서 아무도 나한테 뭘 이해하나 못하니 하는 소리했다간 가만 안둬. (11번 배심원을 지적하며) 특히 저 사람. 한 번만 더 그 따위 소리했다간 그 유럽산 머리통을 날려버릴테니까.

배심원장 딱 2분만이라도 좋으니 말싸움 좀 그만하고 하시던 얘기에 집중하면

안되겠습니까?

8번 배심원 이 애길 해보고 싶습니다. 검사가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소년이 살인이 있었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는데, 영화제목이 뭔지 누가 나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4번 배심원을 가리키며) 여기 이 분께서도 그 점을 몇 차례 지적하셨죠.

4번 배심원 그래요. 그게 피고의 유일한 알리바인데 하나도 성립이 안돼요.

8번 배심원 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얻어맞은 격한 감정상태에서 무슨 기억이 남았겠습니까?

4번 배심원 물론 그렇죠, 보는 등 마는 등 했다고 칩시다. 갠 자기가 말한 그 극장에서 뭘 상연했는지조차 기억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없었기 때문에.

8번 배심원 경찰 조서에 따르면 개기 심문받은 장소가 아버지 시신이 바닥에 누워있는 침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기억이 났겠습니까?

4번 배심원 그럼요.

8번 배심원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4번 배심원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8번 배심원 법정에서는 다 기억했습니다. 제목도 누가 나왔는지도 다 기억했습니다.

4번 배심원 개 변호사가 이젠 다 기억한다고 보란 듯이 질문하고 대답했었죠. 사건이 일어난 건 벌써 삼개월 전이에요. 그 시간이면 충분히 듣고 외울 수 있어요. 난 검거 직후 경찰이 심문한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충격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8번 배심원 개인적인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4번 배심원 하세요.

8번 배심원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4번 배심원 집에 있었습니다.

8번 배심원 그제 저녁엔 어디 계셨습니까?

10번 배심원 지금 뭐하는 거야?

4번 배심원 (10번 배심원에게) 아니요, 질문할 수 있어요. (8번 배심원에게) 법원에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여덟시 반까지 일 마무리해 놓고 집에 와서 바로 잤어요.

8번 배심원 그 전날은요?

4번 배심원 그게 - 화요일이죠. 그 날은 - 그래요, 친구들과하고 브릿지했습니다. 카드가 취미거든요.

8번 배심원 월요일 저녁은요?

7번 배심원 12월 31일까지 가면 얘기해줘요.

4번 배심원 (기억하려 애쓰며) 월요일 (사이) 월요일 저녁. (기억난다) 저녁때 아내하고 심야 영화보러 갔습니다.

8번 배심원 뭘 봤습니까?

4번 배심원 분홍빛 원, 시나리오 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8번 배심원 두 번째 영화는요?

4번 배심원 (긴장하며) 그...잠시만요 - 눈부신 무슨 여산데 - 메인브리지 여사, 아니 베인브리지 여사, 눈부신 베인브리지 여사.

2번 배심원 잠깐만요, 나 그 영화 봤는데 그거 빛나는 베인브리지 여사 아녜요?
 4번 배심원 빛나는 베인브리지 여사. 맞는 거 같습니다.
 8번 배심원 거기 누가 나왔습니까?
 4번 배심원 바바라-롱인가 까무잡잡하고 예쁜 배운데 바라라-롱인지 레인인지 그렇습니다.
 8번 배심원 또요?

4번 배심원 손수건을 꺼내 갑자기 흐르기 시작하는 이마의 땀을 닦는다.

4번 배심원 뭐 나머지는 별로 안 유명한 배우들이라서, 저예산 B급 있잖습니까...뭐
 그렇고 그런...
 8번 배심원 충격받거나 그런 상태 아니었죠?
 4번 배심원 아니었습니다.
 9번 배심원 요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배심원 무슨 또 요점이 나와요?
 9번 배심원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예요.
 10번 배심원 왜요, 이 분이 그 삼류스타를 기억 못했으니까, 개도 기억 못하는 게 맞다?
 9번 배심원 아니요, 기억을 더듬는 식으로 아무도 개가 거기 있었다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장에 있었지만 본 걸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단 겁니다. (4번 배심원을 가리키며) 이 분이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히
 이해된다면 개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살인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0번 배심원 (9번 배심원에게) 헛바닥이 땅바닥에 가 닿도록 얘기해보세요. 갠 유죄예요.
 끝. 내말 아셨어요, 할아버지? 누구 아까 목캔디 있다고 했지?
 2번 배심원 다 먹었네요, 할아버지.
 배심원장 우리가 하나 잊고 있다고 생각 되는 게, 사실 저도 지금 생각났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나와서 말한 거 갖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왜.
 10번 배심원 그 사기꾼같은 신경정신 어찌구 하는 놈들 애긴 여기서 꺼내지도 맙시다. 완전
 사기야 사기, 사람들 머릿속에 쓰레기만 집어 넣는다구. 내가 경영하는 주차장
 중 하나에 정신과 의사들 세 명이나 달주차하는데, 두 말 할 거 없이 세 놈
 다 미친놈이야.
 8번 배심원 정신과 욕은 저 분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시죠.
 배심원장 예, 제 말씀은 그 정신과 박사가 말하길, 개한테 아주 강한 살인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갠 뭐라드라 거- 잠재된 살인의식이 항상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 박사가 여러가지 테스트도하고, 잉크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랑
 다 설명해 주면서 갠 완전히 살인자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2번 배심원 네, 박사가 과대망상형 뭐라 그랬죠.
 배심원장 맞아요.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잊으면
 안된다고 봐요 갠 항상 머릿속에 살인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는 애라는 거.
 12번 배심원 잠재의식 속에.
 배심원장 유독 개만.
 11번 배심원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만-

10번 배심원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만' 뭐가 그렇게 당신은 맨날 죄송해?

11번 배심원 당신이 그렇게 큰소리 치도록 교육받고 큰 것처럼 난 이렇게 교육받고 컸어요. (다른 이들에게 돌려서) 살인충동 살인의식에 대해서 말하지면 우리들 모두 그런 게 없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소수가 실행할 뿐이죠. 대부분은 속에서 강제할 줄 압니다. 그 정신과 테스트가 의미하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4번 배심원 그럼 왜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을까요?

11번 배심원 검사의 의도는 피고에 대한 일반적이 인상을 자기들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심어놓자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열두 명이 똑같은 검사를 받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한 두 명은 잠재적인 살인의도, 살인 충동이 있는 걸로 나올 겁니다.

10번 배심원 그렇다고 싹 무시할 수는 없는 애기지, 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런 사람 중에서도 실행에 옮길만한 애니까 그랬을 거 아냐.

8번 배심원 '사기꾼같은 신경정신 어찌구하는 놈들 애긴 여기서 꺼내지도 맙시다' 그러셨잖아요?

10번 배심원 당신 나 좀 봐 (8번 배심원에게 간다) 젊은 사람이...(멈춘다)

8번 배심원 그를 무시한다. 10번 배심원 화나서 돌아선다.

6번 배심원 몇 시예요?

7번 배심원 6시 5분이요, 비 좀 봐라 저거.

12번 배심원 경기는 물 건너갔네요.

2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그 칼 좀 보여주세요.

8번 배심원 칼을 그에게 밀어 보낸다. 그 칼을 받아서 차근차근 살핀다.

배심원장 아직 6대 6인데요. 누구 좋은 제안 없습니까?

12번 배심원 저요. 밥 먹고 합시다.

5번 배심원 한 시간 더해서 7시까지만 기다려봅시다.

12번 배심원 예 좋습니다.

2번 배심원 어-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뭐 할 말들 없으시니까 하는 애긴데, 이게 좀 걸렸거든요, 어떻게 칼자국이 아래로 났을까 하는 거예요.

3번 배심원 그 얘기를 다시 또 해요, 법정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2번 배심원 저도 다 들었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년이 5피트고 아버지는 6피트 2인치면 7인치나 차이가 나는데, 자기보다 머리하나가 더 큰 사람 가슴을 어떻게 아래로 보고 찌를 수 있었을까요.

3번 배심원 (2번 배심원에게 가서) 이리 줘 봐요.

2번 배심원 칼을 3번 배심원에게 준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실 거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보여드리지요. 누구 좀

일어나 보세요.

잠시 사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8번 배심원 일어나 3번 배심원에게 간다. 서로 쳐다 보다가.

예. (2번 배심원에게) 잘 보세요, 두 번 하신 싫으니까. (8번 배심원에게 돌아서서 그의 눈을 뚫어져라 보다가 자기 몸을 낮춘다) 내가 당신보다 6, 7인치는 작습니다. 그렇죠?

2번 배심원

네, 더 될 거 같은데요.

3번 배심원

그대로 하죠 뭐.

3번 배심원 탁 하고 칼을 펴서, 손아귀에 권 모양을 바꾸고 높이 치켜든다. 내리 찌를 준비를 한다.

8번 배심원과 3번 배심원 미동도 않고 서로 쳐다보다가 3번 배심원이 갑자기 칼을 거칠게 내려찍는다.

2번 배심원

조심해요!

칼은 8번 배심원의 가슴에서 1인치를 남겨놓고 멈춘다.

8번 배심원 미동도 없다. 3번 배심원 웃는다.

6번 배심원

그게 지금 장난이요 뭐요?

5번 배심원

당신 제정신이야?

3번 배심원

진정들하세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8번 배심원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3번 배심원

자, 이 각도를 잘 봐요.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보다 큰 사람 가슴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으면 말해 봐요.

3번 배심원 칼을 8번 배심원에게 주고 비켜간다. 12번 배심원 나와서 8번 배심원에게 가 손아귀에 칼을 권 것처럼 해서 아까 3번 배심원이 8번 배심원을 찔렀던 동작을 해 본다.

12번 배심원

밑으로 숙 들어가네요. 할 말 없네.

5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가며) 잠깐, 이리 쫓아 보세요.

8번 배심원 칼을 5번 배심원에게 준다. 칼을 접어서 조심스럽게 쥔다.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우리 동네에선 필수품이었죠.

8번 배심원

싸울 때 이걸 사용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5번 배심원

너무 많이 봤죠. 우리 집 현관에서, 뒷마당에서, 건너편 주차장. 우습네요. 그걸 생각 못하다니, 애써 잊으려 해서 그랬나. 이 칼은 그런 식으로 잡지

아아요, 칼을 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죠. 아래로 찌르려면 잡는 방법을 바꿔야 되요.
8번 배심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5번 배심원 손아래로요.

칼을 펴서 아래로 잡고 재빠르게 앞 쪽을 가르고 위쪽을 가르는 시늉을 한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이라도 써 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다루죠.
8번 배심원 틀림없나요?
5번 배심원 틀림없습니다.

5번 배심원 칼을 닫았다가 폼다를 반복한다.

5번 배심원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8번 배심원 모두 개가 이 칼 다루는 데 익숙한 애라는 건 동의하시죠?
5번 배심원 네 그렇죠.
8번 배심원 (5번 배심원에게) 당신 생각에 그 상처를 개가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5번 배심원 개 손에 익은 정도라면, 아니요. 난 개가 낸 칼자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손 아래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3번 배심원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그 때 그 방에 있었어?
5번 배심원 아니요, 누구도, 아무도 없었죠.

5번 배심원 칼을 테이블에 내리 꽂고 가로질러 간다.

3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당신 자꾸 얼렁뚱땅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난 하나도 안 믿어.
4번 배심원 피고가 칼 쓰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상처를 냈는가 안 냈는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번 배심원 옳소.
8번 배심원 (12번 배심원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번 배심원 잠시 망설인다. 혼란 속에서 정직하려고 애쓰며

12번 배심원 글썄요, 잘 모르겠네요.
3번 배심원 무슨 말이 예요 그게 모르다니.
12번 배심원 모르니까 모르죠.
8번 배심원 (7번 배심원에게) 당신은요?

7번 배심원 테이블을 죽 둘러본다.

4번 배심원 잠깐만요, 길 건너편 목격자에 따르면...

7번 배심원 잠깐, 내가 한 마디 하고요. 난 짜증나서 더 못 봐주겠어요. 계속 이렇게 이빨만 까다간 끝이 안 날거 같아. 나 “무죄”로 바꿉니다.

3번 배심원 뭐요?

7번 배심원 ‘무죄’로 바꾼다고요, 짜증나서 못 있겠어.

3번 배심원 짜증나서 바꾸다니, 당신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 거야?

7번 배심원 이봐,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해.

11번 배심원 (7번 배심원에게 가서) 저분 말이 맞아요. 지금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주머니 속에 있는 야구 티켓 두 장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사람들 따라서 유죄라고 해놓고 지금은 짜증난다고 의견을 바꿔요?

7번 배심원 이봐-

11번 배심원 누가 당신한테 한 인간 목숨 줄을 놓고 장난할 권리를 줬습니까? 이런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당신한테는...

7번 배심원 잠깐, 당신이 원대 나를 가르치려 들어?

11번 배심원 오늘 당신한테 이거 하나 똑바로 가르쳐야겠어요. 무죄로 손을 들려면 피고가 무죄라고 확신할 때 손을 들어요, 유죄로 생각하면 유죄로 손을 들고. 당신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배짱도 없습니까?

7번 배심원 말다했어?

11번 배심원 유죄요, 무죄요?

7번 배심원 말했어. 무죄!

11번 배심원 왜?

7번 배심원 이런 씨발, 내가 왜 당신한테-

11번 배심원 말을 해요 욕을 하지 말고, 왜?

7번 배심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유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11번 배심원 경멸의 눈으로 7번 배심원을 보다가 자리로 돌아간다.
7번 배심원 수세에 물려 서 있다.

8번 배심원 배심원장님 다시 한 번 더 투표했으면 합니다.
 배심원장 투표요청이 있습니다.

배심원들 자리고 가 앉는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대답하는 사람 없다.

“무죄”부터 손들어 주세요.

2, 5, 6, 7, 8, 9번 배심원 그리고 11번 배심원 바로 손을 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번 배심원 갈피를 못 잡는 표정이다가 이내 손을 든다.

여덟.

배심원장 세는 걸 멈추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본다. 쑥스러워하며 자기 손을 올린다.

아홉. (자기 손을 내린다) “유죄” 손들어 주세요.

3, 4, 10번 배심원 손든다.

9대 3 ‘무죄’ 우세입니다.

10번 배심원

나 솔직히 당신들 이해가 안돼! 계속 그 자잘한 문제들에 매달려서 말야. 어떻게 개 애길 믿을 생각을 하지? (11번 배심원에게) 당신 배운 사람이지? 딱 보니까 그래 겸손 떨 거 없어. 말이요, 책에는 없는 삶의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맙소사, 눈을 좀 크게 뜨고 우리가 말하는 대상을 보라구.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잖아! 저기 있는 저 분이야 (8번 배심원을 가리킨다) 뭐가 씩웠는지 어쨌는지, 어쩌면 그렇게 개 입장에서 잘도 설명하는지 몰라도, 내 보기엔 저 분이 정신과 한 번 갖다 와야 할 거 같아. 이것들 봐요, 우리 사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가 거짓말이야. 그게 개네들 사는 방식이니까. 누가 또 유식한척 하면서 나한테 말 섞지마. 개네들은 진실이란 게 없어요. 아니 한 번 가만 보라구. 인간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 사람 죽이는 데 이만큼도 망설임이 없는 놈들이예요.

5번 배심원 화장실로 간다.

그게 진실이잖아,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 아냐? 그냥 허구한날 싸구려 술에 취해서, 마시긴 또 얼마나 마셔대.

5번 배심원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광하고 닫아 버린다.

예고 하나님! 깜짝이야, 저거 보라구 저거, 저게 뭘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술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빵하면 한 사람 길바닥에 뺨어있는 거지. 그걸 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무슨 말인 줄 알아? 폭력! 사람 목숨이란 게 개네들 생각 하는 거하고 우리 하곤 다르다니깐.

11번 배심원 화장실로 간다. 5번 배심원을 따른다.

당신은 또 어디가?

11번 배심원 대답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다.

들어가서 귀 씻고 잘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겠지.

4번 배심원 일어나 창가로 간다.

내 말 하나도 틀린 말 아냐. 이놈들은 허구한날 술 취해서 싸우다가 한 놈 죽으면, 아 한 놈 죽었구나 한다니까. 상관을 안 해.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동물처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좋은점도 있어요, 나도 이런 말은 첨하는데, 내가 아는 몇몇은 쓸만한 인간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지 예외.

9번 배심원 당신은 환자야 환자.

10번 배심원 환자?

9번 배심원 그만하고 앉아요.

10번 배심원 이 늙은이가 정말! 당신이 뭐야?

6번 배심원 9번 배심원을 향해 움직인다.

12번 배심원 9번 배심원과 10번 배심원 사이로 끼어든다.

(12번 배심원에게) 아니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환자? 저거 봐 저거,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거. 난 여기서 할 말 해야겠으니까 당신은 거기서 들어.

9번 배심원 창가로 이동한다.

12번 배심원 좀 언성을 낮추시죠.

10번 배심원 닥쳤으면 좋겠지. 그 놈들은 단 한 명도, 단 한명도 쓸모가 없어. 내 말 들었어? 단 한명도. 정말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 무지한 - 얼간이들아. (9번 배심원에게) 어이 거기 창문에 계시는 노인네.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잡셨수? 지금 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알아요? 이놈들이 곱하기로 늘어난다고. 이놈들 늘어나는 건 우리보다 다섯 배는 빠르대. 신문도 안 봐요? 다섯 배! 완전 들짐승들이지. 사사건건 우리한테 도전하고, 증오하고, 우릴 파괴시키고 싶어 한다니까. (6번 배심원에게) 당신 계속 그런 눈으로 보지마. 말세야 말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나타날 때마다 씨를 말려야지 안 그랬다간 모두 잡종되서 사라지는 거라구.

6번 배심원 닥쳐요!

10번 배심원 너나 닥치고 잘 들어 이 건방진 놈아. 그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무식한 놈들이 우리 목을 자를 거라구. 그게 개네들 의도야 확 한 번 뒤집고 싶어

하는 거. (7번 배심원에게) 당신한테도 경고하는데, 이놈, 재판에 나왔던 그 놈, 겨우 그거 하나 잡아 갖고 나온거야. 지금 싹을 안 자르면 그런 종자가 계속 나온다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녜요. 법 갖고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구, 왜 우리만 그래야 돼? 그 놈들은 다 무법천진데.

2번 배심원

짜증나니까 그만해요 좀.

10번 배심원

(화가 치밀어 그를 보며) 그래 시원하게 머리에다 구멍하나 뚫어줄까, 어디 찌고만 놈이 감히 눈 똑바로 뜨고 악을 써...?

4번 배심원 10번 배심원의 정면을 막고 서서 강제로 멈추게 한다.

4번 배심원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앉아서 다신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4번 배심원 10번 배심원 서로 뚫어져라 쳐다본다. 10번 배심원 결국 몸을 돌려 한 쪽 의자로 가 사람들과 등을 지고 앉는다. 다른 배심원들 (5, 11번 배심원을 포함해서) 천천히 자리로 돌아온다.

8번 배심원

개인적인 편견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편견이 진실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전 우리가 그 편견의 장막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진실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중 아홉 명이 피고가 무죄라고 표를 던졌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죄인을 사회 안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는데 있어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며, 이런 장치가 바로 기능해야만 우리 제도의 진정한 가치가 보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심원도 자신이 완전히 확신하기 전에는 유죄를 선언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홉 명은 어떻게 당신들 세 분이 그렇게 유죄를 확신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생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4번 배심원

해보죠. 선생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손위로 칼을 올려 찌른 공격은 피고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난 아직도 그 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 살인 현장을 목격한 길 건너편 아파트 여자의 증언

3번 배심원

그렇죠, 그게 이 재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이지.

4번 배심원

둘, 여자의 살인 장면에 대한 기술, 즉 소년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아버지가 가슴을 향해 밑으로 내리 꽂았다. 여자는 정확히 봤습니다. - 비록 아까 우리가 전해들은 접이칼 쓰는 법과는 다르지만.

3번 배심원

웁소! 웁습니다.

4번 배심원

이 여자에 대해서 더 얘기해보죠. 여자가 말하길 사건 당일 밤 11시경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침대는 창문 바로 옆에 있었고 누워서도 창밖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네 집도 철로를 건너서 바로 보이죠. 그녀는 잠이

안와서 한 시간 정도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12시 10분 쯤 창문을 봤는데 지나가는 열차의 차창을 통해서 살인장면이 목격된 겁니다. 그녀가 말하길 죽이고 나서 급하게 불을 켰다. 그러나 소년이 아버지를 찌르는 것을 분명히 봤다. 제가 아는 한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언입니다.

3번 배심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사건의 전부요.

4번 배심원

(8번 배심원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8번 배심원 침묵을 지킬 뿐.

(12번 배심원에게) 당신은요?

12번 배심원

모르겠어요, 증거들이 자꾸 오락가락해서. 아주 복잡하네요.

4번 배심원

솔직히, 어떻게 풀어주자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12번 배심원

글쎄요,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3번 배심원

다른 증거들은 다 버려도 됩니다. 그 여자가 직접 봤어요.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12번 배심원

모르긴 몰라도...

3번 배심원

다시 투표합시다.

배심원장

예, 투표요청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12번 배심원

전 바꾸겠습니다. “유죄.”

3번 배심원

더 없어요? 이제 8대 4.

11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 지금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3번 배심원

난 승부내는 걸 좋아해요.(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말씀드리죠. 우리 포기합시다. 판사한테 가서 말합시다.

4번 배심원

포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3번 배심원

생각이 바뀌었어요.

4번 배심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깐 비도덕적이라고 했잖아요.

3번 배심원

지금은 아녜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고집불통이예요. 말로는 끝이 없어, 일주일도 모자랄 겁니다. 자 난 평결포기. 어때요 다들?

8번 배심원

다시 생각해 봅시다.

3번 배심원

다시 생각한 게 몇 번입니까 (12번 배심원을 향해 손을 흔들며) 저기 있는 월터 톰슨[유명한 광고기획자-역자 주]은 테니스공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12번 배심원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4번 배심원 안경을 벗어서 닦는다.

3번 배심원

예,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8번 배심원에게) 자 결정합시다.

4번 배심원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합시다. (여전히 안경을 닦으면서 눈을 찡그려 시계를 본다) 지금 시각이... (찡그리다가 안경을 쓰고)

3번 배심원

6시 15분.

4번 배심원

(시계를 보며) 6시 15분.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놓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눈을 감고 두 손가락으로 코 양옆에 난 자국을 꼭 누른다. 말하면서

그곳을 비벼준다) 아까 누군가 일곱 시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때까지 가서
평결포기를 선언할지 결정합시다.

**9번 배심원 4번 배심원을 골똘히 쳐다보다가 분명히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생각해내곤 흥분한다.**

9번 배심원 (4번 배심원에게) 괜찮아요?
4번 배심원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7시가 합리적인 결정선일 것
같습니다.
9번 배심원 코를 이렇게 문지르시길래 여쭙어 본겁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서-
4번 배심원 시간을 정하려고 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9번 배심원 중요한 문제라서요.
4번 배심원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9번 배심원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코를
문지르는 거죠?
3번 배심원 영감님, 정말!
9번 배심원 지금 여기 이분께 얘기하고 있지 않나 (4번 배심원에게) 왜 그렇게 문지르는
거죠?
4번 배심원 영감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9번 배심원 미안합니다만 그게 안경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배심원 네, 이제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9번 배심원 안경이 콧잔등에 자국을 남겨 뒀네요, 쓰고 계실 땐 몰랐는데. 신경
쓰이겠어요.
4번 배심원 네, 아주 신경 쓰입니다.
9번 배심원 전 몰랐어요. 안경을 써 본 적이 없어서 (자기 눈을 가리키며) 2.0
2.0이거든요.
7번 배심원 아저씨 안경 팔러 오셨어요?
9번 배심원 (4번 배심원에게) 그 증언을 했던 여자 분도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8번 배심원 맞습니다. 그랬어요.

잠시 침묵.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대화들.

9번 배심원 잠시만요. 한마디만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또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때 모습을 가만 떠올려 보면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고 법정에서 내내
거기에 손이 가 있었어요.
5번 배심원 맞아요. 계속 문질렀어요.
9번 배심원 그 여잔 한 마흔 다섯쯤 돼보였어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 처음 나오는데 한
서른다섯쯤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어요. 짙은
화장, 염색한 머리, 최신유행이지만 다른 어떤 젊은 여자가 입다가 준 것 같은
옷. 안경도 벗었어요. 마음속에 선명히 그려지네요.

3번 배심원 안경을 벗다니, 선생님이 그 여자가 원래 안경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코
 좀 문지르면 다 안경습니까?
5번 배심원 코 양쪽에 그 자국이 있는 걸 봤어요.
3번 배심원 그래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데요?
배심원장 아, 나도 봤어요. 내가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코 양쪽에 그거, 그 뭐라
 그려야지?

배심원장 자기 코 양쪽을 문지르며 그 자국이 있던 모습을 설명하려 애쓴다.

3번 배심원 그래서 무슨 말들이 하고 싶은 건데?
배심원장 그 자국이 있었다고요.
3번 배심원 그 여자가 머리를 염색하고 코에 자국이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요?
9번 배심원 그런 자국이 안경 말고 다른 것으로도 생기겠습니까?
4번 배심원 아닐겁니다.
3번 배심원 (4번 배심원에게) 당신은 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것도 못 봤어요.
4번 배심원 난 봤어요. 이상한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3번 배심원 개 변호사는? 왜 변호사가 아무 말 안하고 넘어갔을까요?
8번 배심원 여기 열두 명이 집중해서 이 재판을 지켜봤지만 열한명이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3번 배심원 네, 클라런스 다로우[유명한 변호사-번역자 주]선생님. 그럼 검사는? 검사가
 우릴 속이려고 일부러 그 여자 안경을 벗겨서 내보냈다는 말입니까?
8번 배심원 안경 써야 하지만 보기 싫을까봐 벗고 다니는 여자 한 번도 못봤습니까?
6번 배심원 내 아내도 집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8번 배심원 아마 그 검사도 몰랐을 겁니다.
6번 배심원 네, 제 말도 그 말입니다.
3번 배심원 좋아요. 그 여자한테 안경 자국이 코에 있었어. 어? 집밖으로 나올 땐 안경을
 벗어요, 왜? 사람들이 자길 우아하게 봐줄 거 같으니까. 하지만 그 놈이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을 때 그 여잔 집에 있었어. 알겠어요?
8번 배심원 (4번 배심원에게)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안경 습니까?
4번 배심원 아니요, 아무도 잘 때 안경 안 씁니다.
8번 배심원 그 여자가 자려고 뒤척이는 동안에 안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3번 배심원 당신이 어떻게 알아?
8번 배심원 모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또 추측하건데 그렇게 뒤척이다가 그냥
 생각없이 창문을 보게 됐다면 그때도 안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말하길, 창문에 시선이 가자마자 살인을 목격했고 이내 바로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3번 배심원 잠깐...
8번 배심원 그리고 또 추측해 봅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기가 분명히 그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흐릿한 형체였다는

것입니다.

3번 배심원 그녀가 뭘 봤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
(8번 배심원에게) 당신이 그 여자가 무슨 안경을 쓰는지 어떻게 알아,
원시인지도 모르고, 선글라스 자국일수도 있고, 당신이 뭘 안다는 거야
도대체?

8번 배심원 내가 아는 건 오로지 그 여자의 시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1번 배심원 안경 없이 60피트 전방에 있는 사람을 분간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번 배심원 이런 증언으로 한 사람을 사형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3번 배심원 한심한 사람들이네 정말.

8번 배심원 그 여자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지 않나요?

3번 배심원 아니요.

8번 배심원 전혀 불가능해요?

3번 배심원 절대.

8번 배심원 (12번 배심원에게)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번 배심원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8번 배심원 (10번 배심원에게) 아직도 유죄로 생각하십니까?

10번 배심원 갠 유죄야, 하지만 상관 안 해. 똑똑한 당신들이 맘대로 결정해.

8번 배심원 어느 쪽으로 투표하겠습니까?

10번 배심원 “무죄.” 나한테 이제 말시키지마.

3번 배심원 당신이 이 중에서 제일 거지같은 인간이야... 난 “유죄”야.

8번 배심원 또 유죄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4번 배심원 없습니다. 나도 확신합니다.

3번 배심원 당신 어떻게 된 거야?

4번 배심원 의심의 여지가 생겼어요.

9번 배심원 11대 1이요.

3번 배심원 그럼 다른 증거들은 다 뭐야 - 그 칼- 다른 모든 증거들은?

2번 배심원 다른 증거들은 다 버려도 된다면서요?

8번 배심원 (3번 배심원에게) 당신 혼잡니다.

3번 배심원 혼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 권리니까.

8번 배심원 당신 권립니다.

3번 배심원 뭐? 뭘 원하는 거야. 갠 유죄야.

8번 배심원 이유를 말해요.

3번 배심원 벌써 다 얘기했잖아.

8번 배심원 설득이 안돼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간 얼마든지 있습니다.

3번 배심원 다, 모두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 법정에서 나왔던 거 모두 다 갠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들 보기엔 내가 무슨 병신 머저리 같아? 이 한심한
인간들아 사내들 가슴이 그렇게 물렁거려가지구. 난 이정도로 기죽을 사람이
아냐. 난 한 번 아니면 아냐. 이 방에 1년은 더 있을 수 있어. 뭐? 누구 할 말
있으면 해!

모두 침묵.

그 밑층에 사는 노인네 - 그 노인네가 다 들었어. 그 칼, 왜? 저 친구가 비슷한 거 하나 들고 왔다구? 그 노인넨 계단으로 도망치는 놈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 몇 초가 걸렸던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말해주잖아. 뭐? 칼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 - 노인이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해? 여기서 뛰고 구르고 별 짓을 다해도 그걸 어떻게 증명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뒤틀리고 뒤집어졌어. 그 안경?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썼는지 벗었는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 당신들 뭘 더 원해? 다 얘기했잖아!

침묵.

그게 이 사건의 전부야.

침묵.

개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기억안나? “죽일꺼야” 그게 그 놈이 한 소리야, 지 애비한테.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지 애비 아냐? 썩어빠진 놈. 난 알아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줄 알아? 당신들이 알아? 어떻게 매일 밤 찾아와서 당신들을 죽이는지 알아? 세상에 당신들 정말 모르겠어? 왜 나한테만 보이는데 왜? 여기 가슴에 칼 들어오는 거 안 보여?

8번 배심원
4번 배심원

겐 당신 아들이 아녜요. 다른 사람입니다.
살려줍니다.

긴 침묵.

3번 배심원

“무죄”

배심원장 문으로 가서 노크한다.

경비 문을 열고 들어온다.

배심원장
경비

평결을 내렸습니다.

네.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비 퇴장.

배심원장과 다른 배심원들 상의, 소지품 등을 챙겨서 8번 배심원과 3번 배심원만 남겨두고 퇴장.

3번 배심원 자리에 남겨져 있다.

8번 배심원 자기 상의를 입고 3번 배심원의 상의를 갖다 준다.

3번 배심원 일어난다.

8번 배심원 그의 상의를 입혀준다.

3번 배심원 나간다.

8번 배심원 따라 나간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잠깐 문가에 멈춰 서서 빈 배심원실을 둘러본다.

칼은 그대로 테이블에 꽂혀있다.

8번 배심원 퇴장.

비가 그친다.

커튼



미지근한극단 | 연출 아름다운